

#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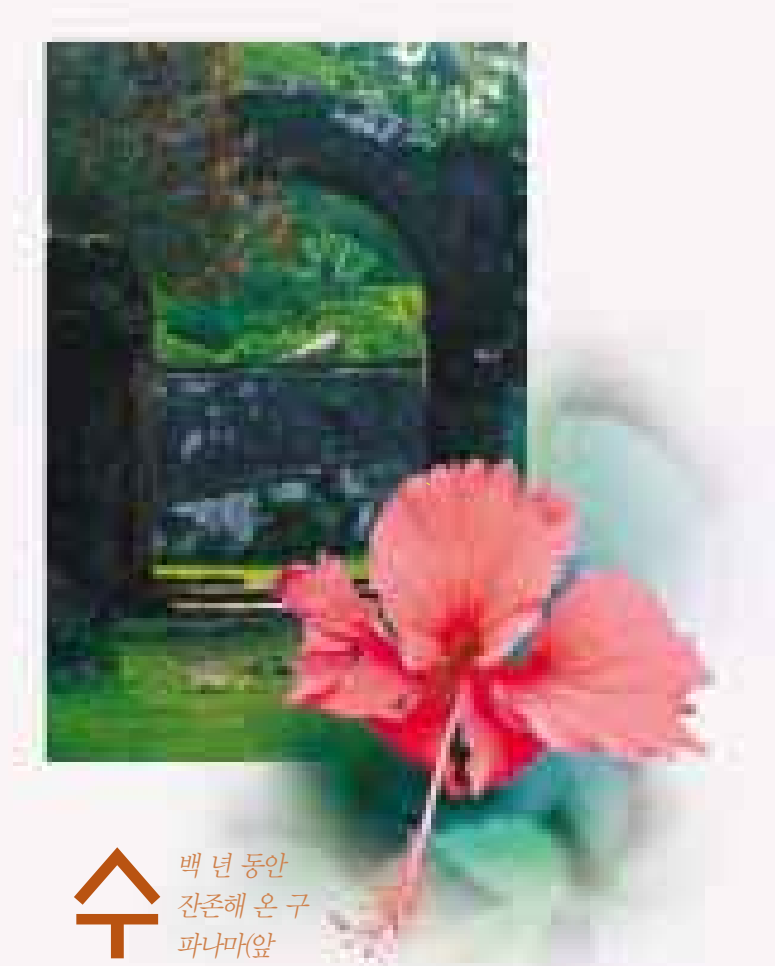
지속되는 기초를 쌓음, 12쪽

물과 불의 침례, 18쪽

결혼을 위해 투쟁함, 28쪽

낚시, 친12쪽





# 수

백 년 동안  
잔존해 온 구  
파나마(앞

표지)와 포르토벨로(앞  
표지)의 폐허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해야 할  
자신의 기초를 쌓고 있는 젊은 후기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킨,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무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빅터 디 케이브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란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새나 버틀러,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알 발 존스,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라, 비비안 폴슨, 새라 알 포터,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털, 김벌리 엘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85호, 제 43권, 제 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서모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일본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모든 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August 2006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화장단 메시지: 영적인 개척지들에 의해 인도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9 "제 이름도 풀 컬러커입니다." 풀 이 컬러커 장로
- 10 복음의 총만함: 인생의 목적
- 18 성신의 은사: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하는 것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을 보호함
- 28 남편의 중독 이름을 밝히지 않음
- 34 주님께 봉사함 *윌리엄 알 워커 장로*
- 40 후기 성도의 소리  
*진리를 찾을 때까지 트리니 조벨*  
*벤티시를 위한 연주 제시카 마르티네스*  
*"형제님을 보고 있었답니다" 린 젠슨*
- 48 애독자 편지

2 영적인 개척지에 의해 인도됨

**표지**  
사진 촬영: 아담 시 울슨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알 발 존슨

**가정의 밤을 위한 제안**

다음 제안은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만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의 공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할 것", 18쪽: 몇 장의 종이에 친숙한 물체의 그림을 그리거나 평범한 문구를 몇 개 적어 각각 반으로 접는다. 접은 부분 중 반을 보여 주고 가족에게 다른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히게 한다. 이 기사에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인용문을 읽고, 물론만 침례 받는 것이

왜 불완전한지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에게 기사의 한 부분을 맡기고 각자 맡은 부분이 성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설명하게 한다.

"수영 금지 구역에서 파도타기를 함", 26쪽:

종이로 몇 개의 경고용 깃발을 만든다. 이야기를

읽은 후, 가족에게 깃발에 표준들을 적게 한다. 아이디어는 경전이나 연차 대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나 또는 지역 지도자에게서 얻을 수 있다. 집 곳곳에 기를 전시한다.

"주님께 봉사함", 34쪽: 종이 쪽지에





복사금지

**사자 굴의 다니엘: 스코트 구스타프슨**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왕의 슬피 소리 질러 ...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다니엘 6:20~22)

## 청소년

- 12 파나마에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함  
아담 시 올슨
- 16 하나님에 대한 의무: 영적인 요새를 지음  
아담 시 올슨
- 26 수영 금지 구역에서 파도타기를 함  
그레그 벨고인
- 32 러시아 기차를 타고  
아멜린 울리 레이놀즈
- 39 포스터: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 44 질의 응답: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저는 과연 이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 47 알고 있습니까?



12 파나마에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번 호에 숨어 있는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면 항상 기도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교회 부름을 적어 가족에게 나누어 주고, 그 부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하도록 한다. 앤도 다이 형제의 이야기를 전하고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간증한다. 기사 마지막 부분을 읽고, 가족이 그 원리에 따르도록 격려한다.

“**신앙의 발자취**”, 친2쪽: 종이에 한 쌍의 발자국을 그리고 각 종이에 “신앙의 발자취”라고 적는다. 자일즈 형제는 전 생애 동안 신앙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련들을 발자국 사이에 적고, 가족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위해 어떻게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한다.

“**제러드의 일지**”, 친8쪽: 가족에게 가정의 밤 시간에 각자의 일지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종이를 나누어 준다.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는다. 가족에게 아론과 제러드가 한 것처럼 그들의 하루에 대해 적거나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한다.

##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경전이 길을 알려 줍니다  
린다 매글비,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영에 귀 기울임
- 친8 제러드의 일지  
릴리아 엠 크라우치
- 친11 특별한 증인: 누구일까요?
- 친12 일요일 상자: 구약전서 내용을 낚음
- 친14 친구 사귀기: 복음 안에서 용감함-브라질 레시페의 에두아르두, 마리아나, 마르세야 두리두



친8 제러드의 일지

###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선택의지, 26쪽
가족 역사, 9쪽	성신, 18, 41쪽
가족, 25쪽	순종, 10, 26, 친4쪽
간증, 32쪽	시련, 44, 친2쪽
개인 발전, 12쪽	신앙, 10, 16, 친2쪽
개척자, 2쪽	안식일, 43, 친12쪽
결혼, 28쪽	영감, 18, 28, 41, 친6쪽
경전 공부, 친4쪽	예수 그리스도, 2쪽
구약, 친12쪽	외설물, 28쪽
구원의 계획, 10쪽	용기, 2, 친14쪽
둘이킴, 18, 40쪽	월포드 우드럽, 친6쪽
모범, 12, 16, 43쪽	음악, 41쪽
목표, 12, 16쪽	일지, 친8쪽
발전, 12, 16, 39쪽	자기 훈련, 친14쪽
방문 교육, 25쪽	지도력, 2, 34쪽
복년, 47쪽	초등학교, 친4쪽
봉사, 34, 41쪽	침례, 18쪽
부름, 34쪽	필멸, 10쪽
사도, 친11쪽	하나님에 대한 의무, 16쪽
선교 사업, 32쪽	회개, 28쪽



# 영적인 개척자들에게 의해 인도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올** 여름은 브리검 영의 영감 받은 지도  
하에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서면서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sup>1</sup>라고 선포한 지 159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역사적 여정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기립니다. 그러나 저는 솔트레이크로의 그 여정에  
앞서 있었던 과거의 “다른 개척자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시 개척자란 말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척자란  
“앞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보이는 사람”<sup>2</su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 다른 곳으로 여행하면서  
개척자라는 높은 표준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예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고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운 모세는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올법을 전해 준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떼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당시에도  
구속력이 있었으며, 지금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신뢰했던 일부 추종자들이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 겪어야 했던 끊임없는 좌절을  
견뎌 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행위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었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인도해 냈습니다.  
분명 모세는 개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개척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또 다른 사람으로  
룻을 들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와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  
백성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백성과  
친족과 자신의 나라를 버렸습니다. 이방인이자  
모압 개종자였던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룻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에는 룻의 결심과  
용기의 정신을 반영해 주는 시적인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모세는 자신이 신뢰했던  
일부 추종자들이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 겪어야  
했던 끊임없는 좌절을 견뎌  
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행위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었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인도해  
냈습니다. 분명 모세는  
개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감: 주님께서 그에게 준 말씀 모든 보람 주셨다. 율리 권이,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 제공.  
오른쪽: 룻과 나오미, 주디스 메어; 사진 촬영: 부니스 포토그래피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sup>3</sup>

그렇습니다. 고귀한 릿은 개척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에스더, 엘리사벳 같은 충실한 여인들도 개척자 자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훗날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른 사람들도 간결하지 맙시다.

### 앞서 간 사람

우리는 침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의 의복은 간소했고, 그의 삶은 검소하고 엄격했으며,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그리고 그가 소유한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닌 분에 의한 성신의 안수가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sup>4</sup>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실 것이요”<sup>5</sup>

요단강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유서 깊은 곳입니다. 처음에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sup>6</sup> 그러자 이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sup>7</sup>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sup>8</sup>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sup>9</sup>

다른 수많은 개척자들처럼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요한은 순교자의 왕관을 썼습니다.

### 구주의 사도들

정신과 행동에서 개척자였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 사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신성한 부름에 응하여 자신의 그물을 치우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sup>10</sup>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sup>11</sup>라고 한 주님에 대한 그의 간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받던 자 요한은 십이사도 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에 있었다고 기록된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잔혹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sup>12</sup> 하시며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막중한 임무를 주시고,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sup>13</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지도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이사도 대다수는 죽임을 당하였으며, 진리는 거부당했습니다. 계몽의 밝은 햇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의 긴 그림자가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수 세대 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sup>14</sup> 아모스는 땅의 기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sup>15</sup> 역사의 암흑 시대는 결코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 빛을 찾고자 함

때가 되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침을 세워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개혁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습니다. 박해는 가혹하고 개인적인 희생은 엄청나며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자들은 온 인류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로 다시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지침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보라 치는 광야의 길을 걸었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윌클리프, 루터, 허스, 츠빙글리, 녹스, 칼뱅, 그리고 틴들, 이들 모두 개혁의 시기에 개척자들이었습니다. 틴들이 자신의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이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비판자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의미심장합니다.  
“쟁기질하는 시골 소년이 당신들보다 경전을 더 잘  
알게 하겠소.”<sup>16</sup>

위대한 개혁가들의 가르침과 삶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훌륭했으며, 그들은  
많은 공헌과 위대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개혁자들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투쟁은 쓸모 없는 것이었나요?” 나는 이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가는  
길을 더 잘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일부분만 읽을 수  
있었고, 일부분만 들을 수 있었으며, 기도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회복의 날은 실제로  
왔습니다. 이제 회복 당시 그곳에 있던 증인이자  
선지자가 된, 조셉 스미스라는 시골 소년의 간증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세계 역사상 중요한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동트는 아침

조셉은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야고보서 일장 오절을

**어** 부였던  
베드로는  
신성한 부름에  
응하여 자신의 그물을  
치우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이로는 주님께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읽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sup>17</sup>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렀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나는 그렇게 해 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일천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했다.

...

“...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sup>18</sup>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충만한 경륜의 시대의  
아침이 와서 오랜 세대에 걸친 영적인 밤의 암흑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기록은  
많지만, 아마도 그 중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니다. 그는 귀중한  
금판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으며, 그 판에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새로이 증거하는 물문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에 쓰인 도구로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설립과 관련된 위대한 계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역을 베푸는 기간 동안,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침례 요한,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해를 견뎌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선지자의 부름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인류의 영혼에 빛과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조셉 스미스는 그의 형 하이럼과 함께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 세상을 바꾸신 분

경전 역사의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 보면 궁극적인 개척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은 고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입니다. 그의 출생은 천사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주님의 삶과 성역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아기의 탄생과 더불어 위대한 천부적 재능과,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과, 가이사의 동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부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아이는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를 요람으로 받으신 주님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주님께서 인간에게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세상의 사고를 바꾸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sup>19</sup>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sup>20</sup>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이 어찌나 극심했던지 주님의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21</sup>

주님은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22</sup>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sup>23</sup>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sup>24</sup>

그분은 진정한 개척자로서 “나를 따르라”<sup>25</sup>고 권고하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 봅시다. 그곳에서 회당장인 아이로는 주님께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sup>26</sup>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sup>27</sup>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sup>28</sup> 주님은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sup>29</sup> 그러자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sup>30</sup>

### 부활의 첫 열매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sup>31</sup>라고 외치는 군중의 외침에 응답한 빌라도의 말을 읽을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이 어찌나 극심했던지 주님의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때 몸이 움츠러듭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sup>32</sup>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의 몸은 빌린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무덤도 주님의 몸을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삼 일째 되던 날 아침, 무덤에 와 보니 무덤의 입구가 열리고 무덤이 빈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천사가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sup>33</sup>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개혁자를 정의해 보도록 한다. 기사에 나온 이 단어의 정의를 읽는다. 개혁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영적으로 길을 준비했는지 보여 주는 몬슨 회장의 예를 몇 가지 나눈다. 가족에게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의 예를 나누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개혁 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중요했던 “개혁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2. 기사에 실려 있는 개혁자들의 사진을 보여 준다. 가족들에게 차례로 사진을 한 장씩 선택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개혁자였는지 설명하게 한다. 이 영적인 개혁자들의 유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궁극적인 개혁자”로서의 구주에 대해 간증한다.

3. 가족과 함께하는 짧은 산책을 인도한다. 몇몇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 몬슨 회장이 설명한 개혁자의 예를 들어 말한다. 개혁자의 정의를 읽고,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게 한다. 가족이 개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유한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 또는 베드로, 그리고 십이사도들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sup>34</sup>

우리의 중재자요, 구속주요, 형제요, 변호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임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성역,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비를 베푸신 행위, 우리에게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궁극적인 개혁자이십니다.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주

1. 윌포드 우드립, “Celebration of Pioneers’ Day”, *The Utah Pioneers* (1880), 23쪽에서 인용.
2. *Oxford English Dictionary* (1971년), “Pioneer”, 2182쪽.
3. 룻기 1:16~17.
4. 요한복음 3:28.
5. 누가복음 3:16.
6. 마태복음 3:14.
7. 마태복음 3:15~17.
8. 요한복음 1:29.
9. 마태복음 11:11.
10. 마태복음 4:19.
11. 마태복음 16:16.
12. 요한복음 19:27.
13. 요한복음 19:26.
14. 이사야 60:2.
15. 아모스 8:11.
16. S. Michael Wilcox, *Fire in the Bones: William Tyndale—Martyr, Father of the English Bible* (2004년), 47쪽에서 인용.
17. 조셉 스미스-역사 1:11.
18. 조셉 스미스-역사 1:13~17.
19. 사도행전 10:38.
20. 마태복음 6:9~10.
21. 누가복음 22:42.
22. 마태복음 25:40.
23. 교리와 성약 64:10.
24. 마태복음 22:37~39.
25. 누가복음 18:22.
26. 마가복음 5:23.
27. 마가복음 5:35.
28. 마가복음 5:36.
29. 마가복음 5:39~40.
30. 마가복음 5:40~42.
31. 누가복음 23:21.
32. 마태복음 27:24.
33. 누가복음 24:5~6.
34. 교리와 성약 76:22~23.

# “제 이름도 폴 컬리커입니다”

폴 이 컬리커 장르  
철심인

**몇**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가족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기를 바라며 스위스에 갔습니다. 취리히 호수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글라루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호텔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머물 다른 곳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몇 차례의 전화에도 성과가 없자, 그는 “아, 잠깐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호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은 미국에 갔는데, 호텔에 전화해서 돌아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했고, 우리는 주인이 그날 막 돌아왔으며 호텔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호텔은 바로 알프스 산 자락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한 후, 호텔 주인은 “폴 컬리커란 사람을 또 아는데, 글라루스에 살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새 친구는 당장 글라루스에

사는 폴 컬리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남자는 호텔 주인에게 제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조상들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제가 솔트레이크 교회 본부 건물에 있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한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폴 컬리커입니다. 전화번호부를 보니 당신 이름도 폴 컬리커군요. 한 번 만났으면 합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와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리 조상들 일부의 이름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 이름들을 우리 가계에 연결시킬 수 없었고, 제가 스위스로 여행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폴 컬리커는 글라루스에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글라루스 주의 문서 보관소 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우리 가족의 뿌리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하자 그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문서 보관소로 데리고 가서 가게 별로 정리한 책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복사는 허용되지 않으니 손으로 베껴 써야 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조상들의 이름을 갖고 돌아온 뒤, 그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글라루스의 문서 보관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이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인 긴박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조상들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인생의 목적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에 대해 살펴보는 연재 기사

**우**리는 먼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 지상 생활의 목적, 즉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경전에 나와 있으며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이 진리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전세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으며, 우리 내부에는 신성, 즉 하나님처럼 될 잠재력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전세에서 우리의 큰 소망이었으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면전을 떠나 육신을 얻고, 신앙으로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모사이아서 3:19)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 육신

리하이는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된 육신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원소는 영원하며,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33~34)

이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은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영생의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써 승리한”(교리와 성약 76:53)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는 육신을 얻고  
해의 왕국에서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상태로 보여 드리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sup>1</sup>라고  
가르쳤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는 지상 생활의  
목적이 육신을 얻기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승영 또는 영생으로 불리는, 영화로우며 부활된  
해의 왕국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sup>2</sup>

### 보이지 않는 신앙

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깨워 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고린도후서 5:7)한다. 경전은 우리에게 “믿음은 ...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이며,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엘마서  
32:21)고 가르친다. 알고 행하는 것은 신앙을 발전시키고  
행사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히브리서  
11:6)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을 얻고  
행사할 수 있었지만, 영생의 자격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자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의 면전을 떠나 망각의 장막이  
우리의 기억을 덮도록 해야 했다.

모로나이는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이라는  
개념을 더욱 넓혀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나니라.”(이더서 12:6)라고 설명했다. 신앙을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지상에 오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목적이다.

###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값진 진주에는 전세에 대해 아브라함이 본 시현에 관한 기사가

**이** 지상 생활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필수적인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끝까지 의롭게  
견뎌야 한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세에서 “자기와  
함께 한” 영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4~25)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생은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고, “준비하는 시간”(엘마서  
12:24)이 되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붙잡을 수 있음을 보이고 그분처럼 성결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지  
아니할지를 보여 준다. 이 지상 생활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필수적인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끝까지 의롭게 견뎌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생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교리와 성약 64:34)하신다. 주님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모사이야서 3:19)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느끼고] ...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모사이야서 5:2)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지상 생활의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구주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니파이후서 25:23)을 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마침내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지(모로나이서 10:32 참조) 보는 것입니다. ■

주

1. *History of the Church*, 6:50.
2. “배도와 회복”,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85쪽.

# 파나마에서

##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함

반대 쪽 페이지: 과거 335년 동안 돌에서 강철로 변모한 파나마시티의 발전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베아트리스 마르티네스, 마이카 모레노, 안드레아 나바스 및 멜리사 베이탕쿠르(오른 쪽부터)와 같은 청년들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은 고무적이다.

이 청년들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 16

71년, 약탈자들은 구 파나마 시를 불태워 폐허로 만들었다. 오늘날, 그 무너진 벽들에서 멜리사

베이탕쿠르는 현대적인 파나마 시의 높은 고층 건물들과 펼쳐진 도시 경관을 가리켜 보인다. 과거 335년에 걸친 그 도시의 발전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멜리사가 지난 6년 동안 이룬 발전은 고무적이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가지 변화는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의 가장 안 좋은 점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라고 17세의 멜리사는 말한다. 그녀는 파나마 파나마시티 스테이크, 싱쿠엔테나리오 와드의 청년 프로그램을 막 완수하려 하고 있다.

멜리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경험들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다. 세상이 변하고 유희과 도전 과제들이 바뀌지만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발전시켜 주는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감

구 파나마 시의 폐허 사이로 여전히 서 있는 건물이 라 카테드랄(성당)이다. 돌로 지어진 그 건물의 탑은 4층 정도의 높이로, 구 항구 도시의 많은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것 같았다. 구 파나마 시절 이후 파나마 시의 윤곽은 극적으로 변모했다. 고층 건물들은 라 카테드랄 너머로 높게 서서 제각각 고층 건물의 이름 값을 한다.

그와 같은 발전은 파나마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의 삶에서도 반영된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높이 솟은 건물들이 하늘로 치솟듯이 청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청년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파나마시티가 원래의 모습(삽입)에서 위쪽으로 치솟은 것처럼, 마이카 및 미네르바 모레노(아래 쪽 맨 위)와 같은 후기 성도 청년들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들을 향상시키고 있다.**

싱쿠엔테나리오 와드의 16세인 안드레아 나바스는 이렇게 말한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교회에 대한 것만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임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러한 지식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이 청년들은 자신이 노력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자신들의 가치를 아는 것은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뻗치도록 돕는다.

그 지식은 안드레아에게 그녀의 와드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자매 선교사가 자신에게 피아노 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 지식은 또한 멜리사에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양로원에서,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더 이상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리고 마르카사 와드의 마이카 모레노에게도 학교 친구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가르치도록 용기를 주었다.

마이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녔어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이지요. 개인 발전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방법을 변화시켰어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요.”

### 새로운 기초

구 파나마가 불타 버린 이후, 파나마 백성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방어하기 더 쉬운 장소를 택해 맨손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일은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구 파나마의 폐허 위로 우뚝 치솟았다.

마이카 모레노와 미네르바 모레노의 개인 발전도 비슷한 과정을 따랐다. 언니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마이카는 끝없는 연령이었고, 미네르바는 몇 달만 있으면 청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연령이었다. 그들은 초등학교에서의 기본 교리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새로운 개종자를 위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돌아보고 있다.

마이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았어요.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제게 복음 교리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밖에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어요.”

미네르바는 “복음과 조셉 스미스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들의 어머니 후스타 또한 자녀들의 발전을 주목해 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꼭 보아 왔어요. 일상 생활에서나 행동에서, 또한 친구나 학교 생활에서 좋은 쪽으로 백 퍼센트의 변화가 있었어요.”라고 말한다.

“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졌어요.”라고 마이카가 말한다.

### 개인 발전

교회 회원으로 성장한 마이카의 친구들도 그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믿는다.

멜리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때로 부모님의 신앙 없이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특히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신앙의 가치가 저를



발전시켰고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어요.”

이들 파나마의 청년들은 개개인 모두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떤 청년이라도 이와 똑같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베아비스타 와드의 베아트리스 마르티네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바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해요.”라고 말한다. 마르티네스는 그 프로그램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마이카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재능을 발전시켜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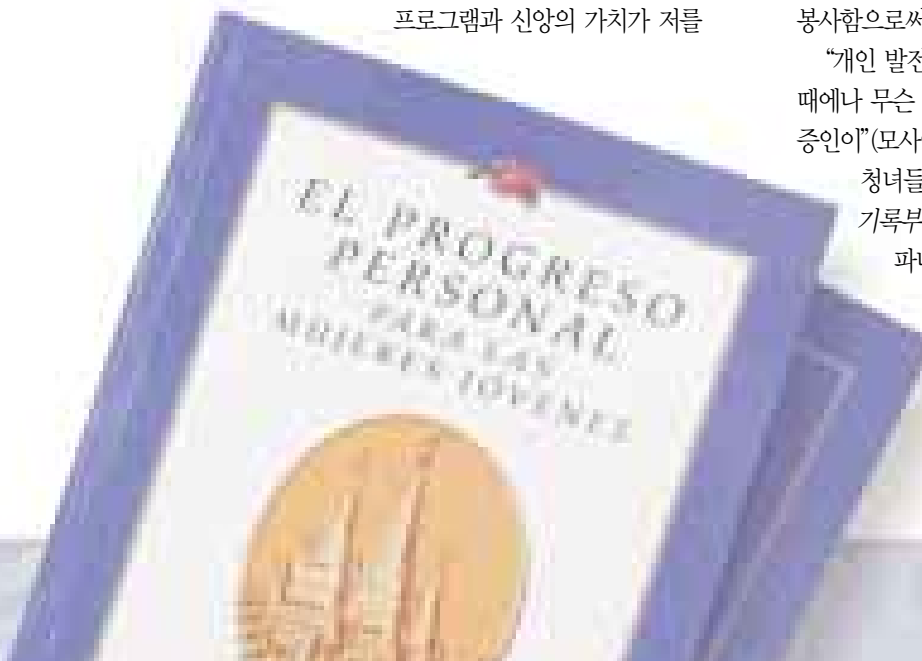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예요.”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들입니다.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재능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개인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러한 은사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9) 되고자 노력하는 수천 명의 다른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2001], 1쪽)

파나마시티가 새로운 고층 건물들을 더하고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개인 발전을 시행하는 청년들 개개인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도록 도우면서 모범을 보일 것이다. ■



# 하나님에 대한 의무

## 영적인 요새를 지음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마** 이클 디아즈는 대형급 대포의 긴 포신 너머 파나마 포르토벨로의 거친 바다를 유심히 바라본다. 요새와 그곳에

보관된 금에 가하는 공격이 바다를 통해 온다면, 공격선들은 12분 이상의 대포에서 발사되는 수많은 포탄을 견뎌내야 했을 것이며, 수군들은 마이클이 서 있는 곳을 포함하여 두 곳의 바닷가 요새를 지키는 병사들을 지나쳐 가야 했을 것이다. 과거의 전투는 격렬했으며 무서웠다.

마이클에게는 다행스럽게도,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전투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그러나 15살 된 마이클이 폐허 속의 두꺼운 돌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혹은 달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파나마 콜론 스테이크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많이 배웠어”라고 마이클이 말한다. 다른 친구들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어.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많이 의존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용기도 생겼어.”

### 지속되도록 지음

튼튼하게 지어진 요새들은 100년이 넘도록

포르토벨로를 보호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

이 청년들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프로그램의 강점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데 있다. 그들의 목표는 인생에서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맞서 대항하는 데 힘이 되는

영적인 요새를 스스로 짓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위대한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제일회장단은 말했다. “여러분은 신앙과 간증을 쌓으면서, 복음을 배우고 나누며 그에 따라 살면서 스스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달성, 4쪽)

푸에르토 필론 와드의 알도 카르테나스 형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가정의 밤을 준비하는 최근의 한 목표를 회상한다. “아빠는 제게 신권과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저는 신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6세기 요새의 유적에서 찍은 사진 속의 청소년들에 따르면, 의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프로그램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청년들은 자신을 위한 신앙의 요새를 짓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 마이클과 아이잭 디아즈. 반대쪽: 마이클, 아이잭, 그리고 그들의 친구 나르시소 가라이와 알도 카르테나스



신권은 우리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목표를 세워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더 큰 책임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됐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바리아다 쿠나 와드의 17세 된 나르시소 가라이 형제는 매일 물몬경을 읽는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경전들도 읽을 것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이제 신약전서를 거의 다 읽었어요. 처음에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이클의 형 아이잭은 그 프로그램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강화시켰다고 말한다. 아이잭이 교사였을 때, 그는 교사 정원회의 유일한 활동 회원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프로그램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던 세 명의 정원회 회원들이 몇 가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도 주었으며, 그 중 한 명은 교회에 참석한 적도 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방문해서 교회에 오라고 초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의무였어요.”라고 아이잭은 말한다.

####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대포 위에 앉아서, 마이클은 적의 맹렬한 공격에 대항하여 그 요새를 방어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대포나 포격 능력이 없는 다른 유형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 말한다.

포르토벨로 위로 석양이 지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학교 친구들은 때때로 ‘물몬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해 저를 놀려요.’ 그러나 그는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 성신의 은사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하는 것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의회 회장 대리

침례는 두 부분, 즉 물의 침례와 불이나 성신의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둘을 분리하면, 그것은 단지 반 쪽짜리 침례입니다.

**제** 목적은 교리와 경전을 통해 우리가 왜 우리의 방식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개종하여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몇 가지 가르침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사유함과 성신을 얻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면, 모래주머니에게 침례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침례의 반쪽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즉 성신의 침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499)

성신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침례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오직 빵만 축복하고 전달하는 성찬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반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침례 의식을 확인 및 성신의 은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 확인 및 성신의 은사를 부여함

확인 의식은 다음과 같은 두 부분, 즉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는 것과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소유자는 “‘성신을 받으라’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성신의 은사를 부여한다.”(*가족 지도서* [소책자, 2001년], 20쪽)

저는 성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경전의 두 가지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침례 받았을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마태복음 3:16; 니파이전서 11:27; 니파이후서 31:8; 교리와 성약 93:15 참조)

두 번째는 오순절 날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 직에 성임되었지만, 주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집 안에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사도행전 2:2~4) 그때 그들은 권세를 받았으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위임한 성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너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성신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네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니라. 그리하면 옛날의 사도들과 같이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성신을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5:5~6)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는 침례 받은 사람 12명을 찾았지만, 그들은 아직 성신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사도행전 19:2)

그 후 일어난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로서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9:2~7 참조)

신앙개조 제4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물의 침례를 위해 준비시키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나 선교사가 구도자를 가르칠 때, 그들은 또한 불의 침례인 성신의 은사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생각하십시오. 우선 물의 침례가 주어지고, 그 후 불의 침례가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침례와 성신을 받기 위한 확인 의식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여덟 살이 되면, 침례 받고 성신을 받을 준비가 될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침례 받고 성신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관시키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에** 베소에서 바울은 침례는 받았지만 성신은 받지 않은 12명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침례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약속되어 있습니다.(20:41~43, 45, 68 참조) 이 메시지를 확고히 하는 다른 참조 성구들이 있습니다.(사도행전 8:12, 14~17; 교리와 성약 33:11, 15; 36:2; 39:23; 49:13~14, 55:1; 68:25; 76:51~52; 신앙개조 1:4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과 성신의 침례가 없는 물의 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둘은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16)

### 불의 침례

저는 불과 성신의 침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들이 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매 성신이 저들 위에 내려오시니, 저들이 성신과 불로 충만하게 되었더라.”(제3니파이 19:13)

또 다른 구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구주의 본을 따라 ... 먼저 물로, 그리고 나서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을진대”(물몬서 7:10) 성신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물의 침례와 불 또는 성신의 침례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씀했듯이, 그 둘을 분리하면, 그것은 단지 반 쪽짜리 침례일 뿐입니다.

### 성신과의 교통

성신은 어떻게 교통합니까?

니파이전서 17장에는 레이먼과 레뮤엘이 니파이를 혹독히 대한 한 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니파이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 니파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죄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나, 주 곧 당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나이다. 당신들은 천사를 보았고 그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니 참으로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니파이전서 17:45)

그러한 교통이 귀에 들리도록 오는 일은 드뭅니다. 이 예와 같이 대부분은 여러분의 느낌을 통해 옵니다.



“불과 성신의 침례가 없는 물의 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둘은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조셉 스미스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일, 연구].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불, 뜨겁게 하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8)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천사의 방언으로 말함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써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참으로 그의 말씀대로, 너희 주 곧 너희 구주를 좇아 물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께 증거할진대, 보라, 그리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그리할진대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나니”, 바로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때 너희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

찬양을 외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기꺼이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물의 침례로써 아버지께 증거하고, ... 성신[을 부여하는 불의 침례를 받[은 후에], [너희는] 새 방언으로, 참으로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느니라.”(니파이후서 31:13~14)

니파이는 침례와 확인 그리고 성신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가 본 바, 너희 주 곧 너희 구속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이는 이 이유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보여졌음이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회개의 상징적인 증거인]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정결하게 됨의 약속이 임함이라.”(니파이후서 31:17)

우리는 때때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죄 사유함은 불과 성신의 침례를 통해 옵니다.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짐작컨대 너희는 길로 말미암아 들어선 후에 너희가 해야 할 바에 관하여 어느 정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도다.” 이들은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았으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느냐?”

“너희가 성신을 받은 후에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이제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너희가 어찌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요?”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1~3)

선교사들이 알고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은 구도자들이 침례와 확인 의식 모두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구도자들은 선택의지를 갖습니다. 다음의 단순한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만일 너희가 이를 깨달을 수 없다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는 때문일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기뿔코 멸망하리로다.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요, 그가 육체로 너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더 이상의 교리가 주어지지 아니하리라.”(니파이후서 32:4~6)

이제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분명히 말씀했듯이, 물의 침례는 단지 반 쪽짜리 침례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신을 받지 못했을 때, 바울은 다시 침례를 주었습니다.(사도행전 19:2~7 참조)

여러분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익숙해지고 이 음성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것을 배우게 해 주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속삭임, 즉 우리가 받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은 많은 경험을 통해 여러 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니파이는 천사들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천사의 방언으로, 즉 단순히 말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조용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니** 파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사함이 임함이라.”**



# 선

교사들(또한 부모들)은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를 가르쳐야

합니다.

비둘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때때로 그들이 일의 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친 후 물로 침례를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머지, 즉 불의 침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확인”을 말하지 않고는 “침례”를 말할 수 없도록 그 두 가지, 즉 물의 침례, 그리고 확인과 성신의 은사의 부여를 하나로 연관지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고정시켜 단단히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현재 흔히 하는 바와 같이 반쪽만 행하고 다른 반쪽은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 사유함과 성신을 얻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면, 모래주머니에게 침례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침례의 반쪽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즉 성신의 침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교사와 부모들은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신앙개조 1:4)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지를 말할 때 다른 것도 같이 말하고, 한 가지를 생각할 때는 다른 한 가지도 같이 생각하도록 항상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며, 속삭임이 올 것입니다.

## 악마의 방해

한 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해하는 사악한 영도 있습니다. 이 경고 또한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가 일함이니, 이는 그가

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러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도

그러함이라.”(모로나아서 7:17)

성신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교통은 악한

영의 속삭임과 영향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 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일진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임이라. 이는 악한 영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 기도[해야 하느니라.]”(니파이후서 32:8~9)

그러므로 성신의 권능으로 교통하는 천사들에 대해 말할 때, 그리고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방해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서에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이 말씀을 저버리겠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겠으며,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했음에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 모든 말을 저버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너희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겠느냐?”(야곱서 6:8)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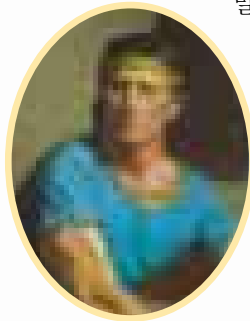
### 영적인 경험을 분별함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얻을 때, 그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경험은 사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매우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행 착오를 통해 배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분명히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삭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러분은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난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속삭임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로서 올 수 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81)



물론은 반대하는 사악한 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나는 네게 …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참으로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견도록,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

“…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그리고 그때 너는 알게 되리니, 또는 이로써 너는 알게 되리니, 곧 의로운 것에 속한 것으로 내가 받을 줄을 내 안에서 믿는 신앙으로써 내게 원하는 것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12~14)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교리와 성약 6:23)

### 개종

개종이 항상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종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엘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됴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곧 그보다 달리 말하자면, 참으로 믿기 전에 말씀을 알게 되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알게 됴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완고함이 없이 침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하는 자가 많으니라.”(엘마서 32:16~17)

구도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옳게 보이고 옳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단지 좋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성이 그들에게 속삭이며, 그들은 마음의 완고함 없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종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와 불의 침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제게 보여 주십시오! 제게 증거를 보여 주시면, 그때 침례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심한 다음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 지혜의 말씀

여러분은 분명 지혜의 말씀이 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리로 주어진다”(교리와 성약 89:3)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따릅니다.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20) 이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교리와 성약 89:19)

지혜의 말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회원들이 성신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합당함을 유지하고 행동하도록 간청하며 애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신과 영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그 몸을 올바르게 돌보아야 합니다.

###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음

사람들은 올바르게 배우면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사심같이 분명히 [이는 맹세입니다], 것처럼 명백히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자들,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사심같이 [두 번째 맹세]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앨마서 23:6)

가르침을 받고 불의 침례인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전능하신 분과 연결될 것입니다.

### 보혜사

여러분은 결코 혼자라고 느끼거나,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6, 18)

“말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낫을 휘둘러 너희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거두라.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질 것이요 …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고 아끼지 말라.

그러하면 너희 등에 곡식 단을 지게 되리니, 이는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33:7~9)

물몬경에 나오는 침례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할 말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제3니파이 11:24~25)

저는 신화를 구성하는 이 세 분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성신의 권능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그 권능을 동반한 채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

2003년 6월 24일,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유타 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전한 말씀 중에서 발췌.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 가족을 보호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가족은 지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기본 단위이다. 상호부조회는 결혼과 가족 생활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둘 때 성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자매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가족 생활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동반자를 찾고 가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는 관계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1쪽)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이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계획의 교리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영원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준비시키며, 그것은 일부 개인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피하게 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확실함을 극복하게 해 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간증하는 것은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충만히 이해할 때 더욱 커질 것입니다.”(“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3쪽)

###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 보니 디 파킨,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자녀들에게 그들이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칠 때, 가족으로서 교회에 갈 때, 가정의 밤을 할 때, 가족 기도를 할 때, 함께 경전 공부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두 간단한 일들이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이 강력한 보호 수단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

“가족 선언문은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선택하는지 봄으로써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또한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를 때 보호받습니다.”(“부모는 거룩한 의무를 지닙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62~63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과 가까워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이 받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부모에게서 오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칠 충분한 시간을 내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인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과 각 자녀에 대한 우리의 교육에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7~58쪽).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위대한 설계자이신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66쪽) ■

수영 금지 구역에서



파도타기를 함

우리는 조류에 휘말려 위험한 바위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레그 벌고인

나는 최근 남아프리카 에르마누스로의 여행에서 선택의지의 중요성을 배웠다. 바닷가에 근접한 이 조그만 마을은 케이프타운에서 차로 약 90분 되는 곳에 있으며 해안을 따라 위치한 많은 아름다운 해변 마을 중 하나이다. 내가 친구와 함께 서핑하기 위해 해변가로 향하고 있었을 때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서핑보드를 내려놓자마자, 나는 따뜻한 백사장에 서서 햇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해변을 바라보았다. 구조요원이 이미 수영 구역 깃발들을 달아 놓았는데, 깃발 간의 간격이 불과 50미터도 채 안 되었다. 해변은 몇 백 미터는 되었고 탈 만한 파도는 모두 수영 구역 밖에 있었다. 어떻게 그 두 개의 빨간색과 노란색 줄무늬 깃발 사이에서 수영하라는 말인가? 구조요원이 해변가 전체를 지켜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친구와 나는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깃발이 꽃혀 있는 구역 오른쪽으로 나가기로 했다. 흰 물 속을 걸을 때 바닷물이 내 다리를 스쳐 지나면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지만 그때까지는 조류에 맞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갔다. 충분히 깊은 곳에 왔을 때, 나는 서핑보드를 타고 연달아 오는

파도가 있는 곳까지 물을 저어 갔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었으며, 우리는 파도를 타고 서로가 파도 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동안 서핑을 즐겼다.

해변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갑자기 내가 출발해 온 곳에서 먼 곳으로, 빠른 속도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깃발들이 아주 멀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다 바닥에 커다란 모래톱이 있다는 것은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으며, 조수가 밀려올 때 바닷물은 깃발이 꽃혀 있는 구역 양 옆에 급류를 만들면서

모래톱을 휩쓸었다. 구조요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물을 지켜보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수영하기에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핑보드의 방향을 돌려 수영 구역을 향해 다시 손으로 물을 젓기 시작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저었지만, 강한 조류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바다로 더 멀리 밀려 나가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서핑보드에서 내려서 걸으려고 했다. 발이 겨우 바다 바닥에 닿았으며, 발가락이 아래의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게로 밀려오는 수천 톤의 바닷물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서핑보드에 올라타야 했다. 나는 그 위에 누워 무기력한 상태로 표류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친구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상화: 루이스 피커

그도 조류에 휘말려 있었다.

“구조요원의 경고를 무시했는데도 나를 구조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영 금지 구역 밖에서 수영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에 대한 결과, 즉 통제력의 상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에 끌려가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해변 끝에 있는 날카로운 바위 한가운데로 끌려가기 전에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파도가 밀려왔고, 나는 그 파도를 타고 해변가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고 친구도 해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수영 구역으로 다시 걸어가 깃발 사이에서 서핑을 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다. 한 명이 수영 구역 가장자리로 너무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는 돌아오라고 서로 경고하곤 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험 지역이 어디이며 우리가 그러한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영하기에 안전한 장소를 볼 수 있도록 해변에 깃발을 꽂을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부모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깃발 사이에 거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수영하고 싶은 곳을 선택할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정해진 지역이 너무 좁거나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한 깃발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유혹의 강한 매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영 금지 구역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한다. 또 때로 우리는 자신을 충분히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위험 지역으로 표류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에 의해 끌려가게 되고, 우리의 선택의지는 제한된다. 즉,

우리는 뒤틀려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게 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위협에 처하게 된다.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죄의 강력한 조류에 휘말릴 경우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지만, 때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다. 안전 지역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통제력의 상실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온종일 수영을 즐길 수 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너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즉 이제

오 사람아,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모사이야서

4:30) ■



# 남편의 중독

남편이 외설물의 울가미에 걸려들었을 때 나는 남편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

**나**의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외설물의 울가미에 걸렸음을 알고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겪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 그것은 깊은 영혼의 병과 배신과 영적인 고뇌이다. 마치 영원하고 귀중한 결혼의 뿌리가 안전과 보호의 복음의 땅에서 뽑혀 비바람에 노출되어 시들어 죽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공포의 느낌이다. 결혼 관계에서 오는 안전과 평화는 사라져 버린다. 신뢰, 존경, 영예, 사랑, 신권, 이 모든 것이 깊이 손상된다.

몇 달 동안 나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다. 남편과 나는 언제나 가까웠으며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거리와 어떤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남편은 복음을 사랑했으며 강하고 충실했지만 이제 그는 주님과 거리가 있어 보였고 성찬식과 성전에 참석하려는 열의가 사라진 듯 했다. 남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고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에는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의 주위에는 어두움이 깔려 있었고, 그는 심히 불행해 보였으며 마음속에는 분노마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인터넷 외설물이 그 이유라 짐작했기 때문에 남편과 우리를 위해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다. 남편은 특히 밤늦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며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의 컴퓨터는 패스워드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두었다. 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잘 몰랐지만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돌리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구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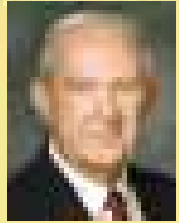
이따금 외설물의 악에 대해 총관리 직원들이 한 말씀을 남편에게 인용하곤 했다. 남편은 그 말씀에 대해 통찰력 있는 논평까지 하면서 말씀에 철저히 동의했고, 틀림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성전 기도 명부에 올리기도 했지만 나는 나의 소중한 남편이 복음의 안전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

마침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요한복음 16:24, 제3니파이 27:29 참조)라는 경전의 말씀을 믿으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 달라고 간구했다. 그것은 나에게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일 문제라는 것이 내가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진심으로 남편이 외설물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남편을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내게 변화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간구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의 결혼 생활이 기쁘고 영원한 것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말씀드렸다. 그리고 매주 성전에 가고 남편을 위해 금식하겠다고 결심했다.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독감에 걸려 컴퓨터를 켜 둔 채





### 하나님을 신뢰함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필요할 때 그분이 기꺼이 도움을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

“마음의 화평, 괴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리처드 지 스킵트 장로,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시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6, 78쪽.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컴퓨터를 끄려고 했을 때 갑자기 조사해 봐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컴퓨터에 외설물이 있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동안, 나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알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 쏟아냈을 때, 구주의 속죄로 가능해진 위안이 나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했다. 고통과 두려움이 가벼워지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나의 정신과 마음에 흘러 들어왔다. 남편과 나와 우리의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것이었고, 나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나는 이것이 남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소극적으로 방관하며 남편이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만을 바랄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다. 나는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충실하고 순종한다면 나 혼자만의 싸움은 아닐 것이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는 남편을 다르게, 좀 더 나은 면에서 보게 되었다. 나는 남편이 인생의 많은 역경을 극복해 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제 남편이 자신의 영생과 우리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음을 보았다. 나는



**고** 대의 다윗처럼 남편과 나는 실존하고 있는, 강력한 골리앗을 대적하여 이겨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남편의 기본적인 사랑과 신앙,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보았다. 그러나 사랑과 신앙과 신뢰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에게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신뢰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와 힘과 그를 괴롭히는 악마로부터의 해방을 간구함으로써 이 탐닉에 정면으로 맞설 힘을 그에게 줄 것이다.

### 주님의 인도에 따른

주님의 힘을 입어 나는 행동에 착수했다. 남편이 치유되려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으므로, 나는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와 다른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당분간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되었다. 일단 남편은 며칠간 유혹을 멀리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을 그도 인정했다. 남편은 혼자서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스스로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는 수치심을 느껴 그 죄를 나와 하나님에게서 숨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수년 전 남편에게 침례를 주었던 절친한 친구에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축복을 받는 중에 남편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 번 확신했다. 남편은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옳고 그릇됨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축복 받았다. 외설물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력을 왜곡시키기에, 이는 매우 커다란 도움이었다.

이 축복은 남편과 나를 강화시켜 주었다. 나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영적 노력을 기울였다. 금식과 기도를 자주 했으며 성전에 참석했고, 경전, 특히 몰몬경을 열심히 읽었다.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지식을 얻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외설물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고 또한 후기 성도 전문가들이 쓴 자료도 읽었다. 남편과 나는 신권 지도자와 상담했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을 격려해 주었으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 주었다.

나는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의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대지 않았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만 얘기했으며, 적절한 때라고 느꼈을 때에만 남편과 이야기했다. 나는 참으로 많은 인도와 영감을 받았다.

때때로, 특히 초기에는 내가 받았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는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갔다.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이 깊음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남편은 우리가 한 팀이며, 우리가 함께 적과 싸울 것이며,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내가 그의 편임을 알아야 했다. 그의 회개의 과정이 그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경험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강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그를 사랑했다. 나는 독서를 통해 외설물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앗아간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스스로 신앙을 다시 키우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나는 또한 나의 실수와 약점을 남편 앞에서 예전보다 좀 더 쉽게 인정하는 것을 배웠으며 남편의 충고와 조언을 좀 더 자주 구했다. 나는 남편의 통찰력과 지지에 겸허해졌으며 감사를 느꼈다. 이는 우리 두 사람 모두를 강화시켜 주었다.

나는 남편과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많은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남편이 변화를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느끼기를 원했다. 우리는 자주  
산책했고 시골길에서 한적한  
드라이브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했다. 나는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유혹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재발의 고통

그 후, 남편이 근무했던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파산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남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경력과 기술이라면 곧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일자리가 없이 수개월이 지나갔다. 남편은 실의에 빠지지 않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남편은 매우 약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재개했다. 내가 일하러 나간 시간에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차단 장치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우회해 갈 수 없는 차단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남편이 다시 나쁜 습관에 빠졌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야 하나? 그러나 나는 남편이 자신이 한 일을 내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참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또다시 우리는 함께 울고 기도했고,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친숙하고 조용한 확신이 찾아왔고,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중독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함을 깨달았다. 남편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남편이 더욱 강해질 때까지 패스워드는 내가 관리하기로 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축복은 그가 임시직을 구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은 현재 그가 가진 좋은 직장으로 연계되었다. 남편은 이 축복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생애에 내리시는 친절하신 자비에 대한 증거로 여긴다.

감독님이 정한 시기에 따라 남편이 충분히 오랫동안 외설물을 멀리하자, 그의 성전 추천서가 갱신되었다. 남편이 죄의 쓴 맛을 확실히 맛보았던 것만큼 그가 회개를 통해 느꼈던 기쁨은 얼마가 표현했던 것처럼(엘마서 36:21 참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감독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의 힘찬 남편의 발걸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이었다.

### 축복에 대한 감사

수년이 지난 지금 이 기사를 쓰면서, 나의 마음은 여전히 이 경험을 통해 온 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로 넘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그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남편은 좀 더 겸손해졌고, 우리 둘 다 구주의 속죄에 대해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낀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강력한 골리앗을 이겨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

# 러시아 기차를

타고

20시간 동안 러시아를 기차로  
여행하며 가졌던 경험은 최소한 한  
사람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다.

아밀린 울리 레이놀즈

**자** 원 봉사 영어 교사로 러시아에 갔을 때 나는 러시아어를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러시아어로 된 어린이용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공부를 시작했다. 러영사전을 사용하여 거의 모든 단어를 찾아보면서 어렵게 하루에 한

과를 독파했다. 그런 다음 러시아어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서투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는 자신이 바보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드디어 나는 간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연습하기 위해 내용을 러시아어로 일지에 적었다.

러시아어가 배우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거의 3개월 동안 러시아 우파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또 한 명의 영어 교사와 함께 사라토브라는 멀리 떨어진 한 도시를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기차역에서 훌륭한 한 후기 성도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를 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기차역으로 가서 우파까지 20시간의 기차 여행에 들어갔다.



우리는 조그마한 칸막이 방에 함께 타게 된 두 사업가 때문에 다소 긴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몹시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곧 안심했다.

사라토브를 떠나올 때 우리와 함께 머물렀던 그 가족은 모범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면서 “모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선교사 소책자 몇 권을 우리에게 주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나누어 주라는 목표를 주었다. 반신반의하면서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두 남자를 쳐다보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마 그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렸다.

그러나 내가 경전을 읽으려고 꺼내자, 그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책자를 주었고, 그들은 그 책자를 읽었다.

얼마 후 나는 일지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왜 러시아어로 적지 않는냐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종종 러시아어로 썼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내가 보여준 페이지에는 우연히도 내 간증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읽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기꺼이 허락했다. 그들은 또한 내가 준 러시아어판 몰몬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그들이 질문을 하자 그 방은 가득 찬 영으로 흘러 넘치는 듯했다. 그 중 한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 같은 느낌을 나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나는 서투른 러시아어로 그것이 성신이라고 설명했다.

그에게 제3니파이 11장을 읽게 했다. 우리가 미대륙에서 백성들 가운데 베펬 구주의 성역을 읽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읽기를 멈추고 조용히 이렇게 질문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사랑하십니까?”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예, 그분은 당신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동안 나를 쳐다본 뒤, 시선을 책으로 돌려 다시 읽기 시작했다. 우파에 도착하자 우리는 그에게 선교사 전화 번호를 주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임 선교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20시간 동안의 이 특별한 기차 여행이었다. 그날 밤 뿌려진 작은 씨앗들이 잘 자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 사람들이 개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돌이킴을 받은 것이다. ■

# 주님께 봉사함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칠십인

**신** 앙개조 제5조는 후기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부름을 받기 위해 감독실 또는 지부 회장실로 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를 간절히 구할 때 영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을 받아들일 신앙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책에 스스로를 지명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이 왕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부름 받는 이 독특한 방법은 주님의 교회를 다른 교회와 구별해 주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원리는 우리의 부름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부름에서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부름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받은 부름에서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부름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회장(1871~1961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름 받은 직책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직책을 구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sup>1</sup>

일본 요코하마 스테이크의 엔도 다이 형제는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른 한 본보기입니다. 그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그 후 스테이크 회장으로 수년간 봉사한 후 2000년에 해임되었습니다. 해임된 스테이크 대회에서 간증하면서, 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과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축복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다음 주엔 아마도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엔도 형제의 감독은 그를 접견했으며 그를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전 스테이크 회장인 그는 겸손하게 그 부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봉사하겠다는 그의 열의는 부름에 따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름 받든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에 있었습니다.

# 엔

도 다이 형제는  
스테인크  
회장으로

봉사한 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라는 부름을 충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으뜸가는 소망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 주님의 부름

예수님은 십이사도가 될 사람들을 찾아 부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언젠가 저는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신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이 최근에 와드 감독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형제들의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축복 받았습니다.

파우스트 회장은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이러한 직책에 자원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새로운 감독단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지도 않았으며 그 직책에 뽑히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감과 계시를 통해 이 와드의 새로운 감독단으로 봉사하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그 부름에 대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둬되어 행해지는 바와 같이 이 형제들을 감독단으로 부르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감독님은 그들에게 부름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감독이 와드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와드에서 아홉 명의 자매와 이야기했지만 단 한 명도 그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실망하면서 말했습니다.

팩커 회장은 그 감독에게 자매들이 왜 아무도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그 자매님들에게 부탁은 했지만 부름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팩커

회장님은 부름이 올바르게 주어졌다면 누군가가 그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아홉 번이나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부름을 주는 것에 완전히 필적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권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요청하거나, 지명하거나,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주며, 그 부름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형제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한 마디의 말도 없이 그들은 부름에 대한 답이 무엇이 될지 알았습니다.





## 해임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처럼 해임도 받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기 위해 운동을 벌이지 않는 것처럼 직책을 사임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 받았던 것과 같은 권세에 의해 해임 받습니다.

1947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1899~1994년)은 저의 할아버지이신 제임즈 에이치 위커 형제를 캐나다 앨버타 주 레이몬드에 있는 테일러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할머니 패니 위커 자매는 수년간 스테이크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직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위커 회장에게 그 부름을 주면서 벤슨 장로님은 할머니가 남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테이크 청년 회장을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섭섭해 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그 직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직책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수년 후 벤슨 회장님은 그때의 일에 대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해임시켰을 때, 자네 할머니는 크게 실망하셨네. 그러나 다음 번에 만났을 때, 할머니는 해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하셨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부름에서 해임될 때, 우리는 그 결정으로 인도한 영감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결의를 갖고 받아들임

충실한 회원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들이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교회 역사는 헌신적인 성도들이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부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제일회장단의 해리 디 모일 회장님(1889~1963년)이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한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주었을 때, 패커 회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모일 회장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형제님이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후에, 이 부름에 대한 형제님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패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형제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무언의 대화, 그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모일 회장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며칠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왜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후 모일 회장님은 매우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말씀드리는데, 실은 이 일은 좀 급한 일입니다. 혹시 3월 13일까지 떠날 준비를 하실 수 있을까요?’

“겨우 11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제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후 그는 ‘예, 회장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의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 질문했습니다. ‘곡식 창고는요? 가축들과 기타 다른 재산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모두 잘 되겠지요.’ 라고 그 형제는 말했습니다.”<sup>2</sup>

보통의 경우, 이렇게 긴급히 일을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직책에 부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일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는 급한 경우로, 그 부부는 신앙과 헌신과 확고한 결심으로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본보기입니까!

## 부름을 영화롭게 함

몰몬경에서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구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 야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 대하여 우리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되”(야콥서1:19) 신권의 맹세와 성약이 들어 있는 교리와 성약 84편은,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33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존엄성과 중요성을 키워 부름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고귀하고

칭찬할 만하게 만들고 이를 확대하고 강화시켜 하늘의 빛이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것에 관련된 봉사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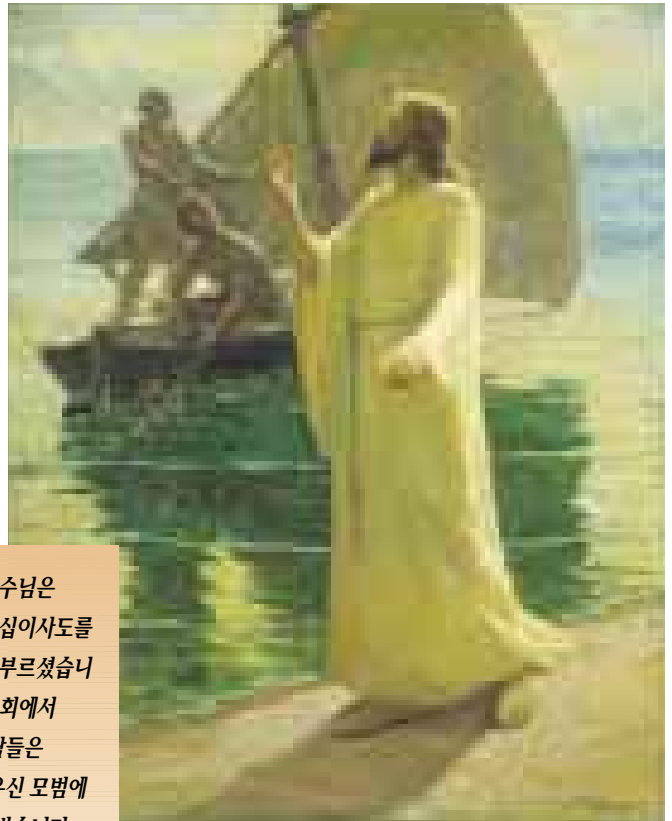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우리의 부름에서 인도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름과 더불어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들 가운데 한 가지는 …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계시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부름과 더불어 응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도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실 때만 주어집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그 말씀은 계시의 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sup>4</sup>

### 주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임

요약하면, 여기에는 교회에서의 부름과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1. 부름을 주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영감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부름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위엄 있고 경건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부름을 주어야 합니다.
2. 기꺼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하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3. 어떤 직책에 부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름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인젠가는 우리에게 부름을 주었던 동일한 권세에 의해 해임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해임될 때, 우리는 봉사할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감에 의해 부름 받은 것처럼 동일한 영감에 의해 해임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5. 부름과 해임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합니다.
6. 남편이나 아내가 중요한 직책에 부름 받을 때, 둘 중 한 사람은 막중한 직책에서 해임되는 것이 배우자나 나머지 가족을



## 예

수님은 십이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세우신 모범에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위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 우리는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잠언 3:5~6참조)

8.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9. 부름과 더불어 위대한 약속과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그 부름을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증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고, 모든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도움 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부름을 받든지 그것을 행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sup>5</sup>

부름을 받아 봉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왕국 건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

### 주

1. In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154쪽.
2. *Follow the Brethre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65년 3월 23일), 8쪽.
3. “신권의 권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60쪽.
4. “Rise to Your Call”, *리아호나* 및 *Ensign*, 2002년 11월호 76쪽.
5. “Words of the Living Prophet”, *리아호나*, 1999년 4월, 18쪽.

#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33 참조)

## 진리를 찾을 때까지

트리니 조벨

**나**는 11살쯤 되었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내가 자란 가정에서는 성경을 매우 성스럽게 여겨 자물쇠가 달린 벽장에 보관해 두었다. 내가 13살, 그리고 내 동생이 12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 캐나다로 이사를 했다. 16살에서 20살이 되는 동안 나는 두 곳의 기독교 교회에 다녔다. 그들은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지만, 구도자였던 나는 회원들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바로 그들이 서로 잘

**전** 남편은 우리 차를 가져갔는데, 나는 아기를 안고 매서운 바람을 헤쳐 걸으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그 후 3년 동안 나는 이 두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23살이었을 때,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청년을 만나 몇 달 후에 결혼했고, 곧 첫 아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언제나 직장에서 일찍 집에 들어와 집안 일을 도와주었다. 나는 집에서 매우 행복했고 평화로웠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었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편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친구들은 술집에도 가기를 원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되어 버렸다. 결국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곁을 떠났다. 남편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둘째 아기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 평안을 찾을 수 없었고 울며 잠이 들어 또 울면서 깨어나곤 했다. 그러나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준 한 여성 덕분에 기독교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에 관한 일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심지어 더 많은 교회를 조사해 보겠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교회에 가기 전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다니던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교리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진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유였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오빠와 올케를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 나서기 전에 날이 어두워졌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만 했다. 때는 1992년 3월이었고, 매우 추운 날씨에 매서운 바람까지 불었으며, 안고 있는 아기는 계속 꿈틀거렸다. 아기가 바람을 맞지 않게 하려고 나는 여러 번 뒤로 걸었다.

전 남편은 우리 차를 가져갔는데, 나는 아기를 안고 걸으며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고 생각하자 슬퍼졌다. 삶이 내게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주위를 돌아보고 나 혼자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아버지, 빛을 찾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다.

마침내 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버스가 오자 항상 그랬듯이 앞 좌석에 앉았다. 왼쪽을 보니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는 두 젊은이가 보였다. 그 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서툰 스페인어로 나에게 “스페인어를 하시지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럼요”라고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그는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나에게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떤 교회에서도 이 아름다운 표현을 들어 보지 못했다.

언제나 말씀,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만 들어 왔다. 그래서 나는 기쁘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2년 6월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 특별한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침례의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치 납덩이를 발에 걸고 걷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물속에서 나왔을 때에는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었다. 선교사들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했을 때 따뜻한 느낌이 몸에 느껴졌고 전에는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평화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마음속의 기쁨과 평화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례 받은 지 몇 개월 후에 나는 유아반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일 년 후에는 엔드우먼트를 받았다. 또한 교회에서 훌륭한 형제를 만났다. 우리는 1994년 캐나다 토론토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아름다운 아들을 축복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있으며 복음에 대한 간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이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안다. ■

## 벧시를 위한 연주

제시카 마르티네스

**마**지막 상자를 스테이션 왜건 뒷좌석에 쑤셔 넣고 문을 활 닫은 후 시계를 보았다.

일정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시험지 뭉치의 채점은 끝났고 물건은 차에 다 실었다. 내가 즉시 떠난다면 켄터키 주 루이빌까지 갈 때까지 마지막 한 시간 정도만 어둠 속에서 운전하면 될 것이다.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에서의 마지막 두 주는 길었고 견딜 수 없이 지루했다. 법대생인 남편 마크는 루이빌에서 여름 인턴십을 이미 시작했다. 그러나 사우스벤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나는 남편과 함께할 수 있기 전에 2주 동안 학기를 마무리해야 했다.

길에 들어서자 안심한 나는 차를 빨리 몰았지만, 5시간 걸리는 여행에서 한 시간 정도 달렸을 때, 나는 사라와 그녀의 딸 벧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9개월 전에 상호부조회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뒤에 서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라고 해요. 유타에서 왔어요. 이 애는 벧시이고요. 하늘에서 왔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웃었고 즉각 그녀가 좋아졌다. 그녀도 나처럼 법대생의 아내였고, 그녀가 나의 방문 교사로 부름 받았을 때 기뻐다.

내가 떠나기 약 한 달 전, 벧시는 발작을 일으켰다. 검진 결과 거의 수술 불가능해 보이는 커다란 뇌 종양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수술하지 않고서는 벧시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사라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 사람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적을 간구했다. 벤티는 뇌 수술을 받았고 아이가 수술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의사는 놀랐다. 종양의 일부만을 제거했지만 벤티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한편, 벤티의 부모는 그 어린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나머지 종양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술은 루이빌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실시되었다. 사라는 아직 벤티와 함께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제때 치르지 못했던 기말 고사를 치르기 위해 사우스벤드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곳에 들르지 않고 계속해서 차를 몰아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것도 내가 그곳에 들러야 한다는 내부의 음성을

잠재울 수 없었다. 나는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벤티의 병실로 연결되었고 사라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로 미루어 나는 나의 전화 때문에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내가 그곳에 들른다면 그녀는 너무나 기뻐할 것이었다. 나는 영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오는 평화와 안심을 느꼈다.

병원으로 가면서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서류 가방과 책 상자 사이에 바이올린이 끼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간의 죄책감이 들며, 세 살 때부터 컸는데도 수주 동안 바이올린에 손대지 않았음을 기억했다. 음악은 언제나 내 삶의 행복의 원천이었다.

바이올린을 가져가서 벤티에게 들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때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고도 없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나 주변 사람들에게 즉흥 연주를 듣게 한다는 것은 다소 무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주를 들려 주겠다는 생각은 방문하라고 속삭였던 그 영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사라는 지쳐 있었지만 나를 보고 기뻐했다. 벤티의 머리에는 커다란 튜브가 꽂혀 있었고 목에도 튜브가 꽂혀 있었다. 나는 아기의 작은 몸을 보고 눈을 들여다 보며 그 애가 얼마나 큰



## 한 시간이 넘도록 찬송가와

초등회 노래와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연주하는 동안, 벤티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뺨히  
바라보았다.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 내야 할지 궁금해 했다.

사라는 내가 바이올린을 갖고 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와 클래식 음악, 그리고 그녀가 요청한 곡 중에서 내가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연주했다. 연주하는 동안, 벤티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뵈히 바라보았다. 사라는 수술 이후 벤티가 이토록 집중했던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연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몇몇의 어린 환자들과 그들의 부모가 그 방에 들러서 한동안 연주에 귀 기울였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다. 침대 발치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주하면서 나는 앓고 있는 이 어린 소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렬한 사랑에 압도되었다. 연주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벤티가 음악을 통해 고통을 잊을 수 있기를 바라셨음을 알았다.

그날 밤 루이빌로 가는 여행을 마치기 위해 병원을 나섰을 때 나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내 축복문의 내용을 생각났다. 그것은 내가 음악적인 재능을 축복 받았으며 그 재능을 발전시켜 남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벤티를 통해 나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느니라.”(교성 46:26) 성령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나는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었고, 자녀들을 동정하는 그분의 크나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 “형제님을 보고 있었답니다”

린 젠슨

**건** 초 수확이 한창이던 여름이었다. 건초가 많이 베어졌고 나의 이웃 프랭크 리즈는 건초 수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슬이 내리기를 고대했다. 마침내 어느 토요일 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 프랭크는 별판으로 차를 몰고 나가 건초를 묶기 시작했다.

건초를 묶고 있던 그는 들판 저 너머로 그의 이웃 친구 차의 헤드라이트를 보았다. 그 역시 좋은 조건을 활용해 건초를 묶고 있었다. 몇 해 전 프랭크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자정이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다. 목초가 이렇게 많이 베어져 준비되어 있고 조건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건초를 묶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 큰 유혹일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웃의 헤드라이트를 보았고 그가 여전히 건초를 묶고 있음을 알았다. 자정이 되기 몇 분 전에 프랭크는 건초 묶는 기계를 끄고 그의 트럭으로 트랙터를 몰았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는 이웃도 안식일을 지키기로 하고 건초 묶는 일을 중단하는 것을 보았다.

성찬식에서 이 이야기를 한 후, 프랭크는 현재 와드 감독인 그의 이웃을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질문했다.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먼스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다.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님을 보고 있었답니다.” ■

# 질문의 응답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저는 과연 이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 리아호나의 대답

**시**련이 없다면 삶은 좀 더 쉽겠지만, 우리는 많이 배우거나 발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우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시련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간의 가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련은 우리가 충실하리라는 것을 주님과 우리 자신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연 재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어떤 시련들은 필멸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앞두고, 우리는 그에 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들은, 실수나 죄와 같이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이러한 시련 중 일부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시련을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들곤 하는 거친 말로 인해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실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도움과 위안을 간구하십시오.

시련을 얼마나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은

시련은 여러분이 배우고, 겸손해지고, 더욱 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은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삶은 하나의 시험이며, 시련은 여러분이 충실하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시련을 잘 견디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자매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발전하는 사람들은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며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시련을 겪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하필 나야?”라고 질문합니다.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 간의 긴 전쟁이 니파이인들에게 어떻게 다른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자들이 완악하게 되었으니, 이는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함이고, 또 많은 자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더라.”(앨마서 62:41) 모든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지만, 모두가 그 전쟁을 통해 발전하기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시련을 잘 견디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기도, 금식, 경전 공부 및 의로운 생활을 통해 보혜사인 영을 구한다. (2)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교회와 성전에 참석하고, 사랑하는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련 중에도 인생에는 여전히 좋은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4)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님과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조언을 구한다.



예전에 자신이 겪은 시련을 누군가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기꺼이 돕고 싶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주께서는 고통과 병과 유혹과 연약함을 포함한 시련을 몸소 겪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자비로우시며,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엘마서 7:11~12 참조) 시련을 겪을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 독자들의 대답



**자매님의 시련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련 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매님이 어떻게 시련에 대처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매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자매님에게 필요한 힘과 인내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분명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사라 엠, 16세, 독일

저희 감독님은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감독님과 이야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감독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시며 돕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문을 자주 읽으십시오. 축복문은 힘든 시기에 자매님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 에이치, 20세, 미국 몬태나 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도록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자매님이 시련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손을 잡으시고 자매님의 머리에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복음 가까이 머무십시오. 그것이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리아 시, 19세, 이탈리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넣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시련에 가까이 맞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련은 결국 자매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는 좀 더 큰 의로움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안을 간구하고, 경전을 탐구하며, 항상 영원한 시각을 가지십시오.

오데사 비, 18세, 필리핀



각각의 시련에 있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련에 굴복하거나, 그 시련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실과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자매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때 더욱 견디기 쉬워질 것입니다.

리타 제이, 20세, 캐나다 앨버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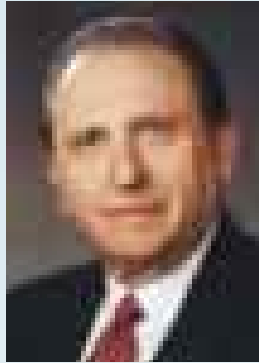


우리는 시험 받고,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시련을 겪는 것은 배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시험으로 우리는 잘 연마되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써 자매님은 좀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시 에이치, 14세, 미국 네바다 주

주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시련 중에 있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때,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희망의 빛을 깜박거리고 약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은 화평을 가져다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정원회 제1보좌, “Finishers Wanted”, Ensign, 1989년 6월호, 5쪽.

제가 겪은 고통을 돌이켜 볼 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제 인생 여정에 걸쳐 간직하고,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훈을 한두 가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즈 오, 20세, 영국



우리의 지상 생활은 시험 기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기에 합당하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받고, 삶의 노고를 경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적은 쇠막대로부터 우리를 돌려놓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구원의 계획에서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질 때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셀소 오, 19세, 브라질

리아호나 및 독자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사진(사진을 실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와 함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9/06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2006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질문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할 수 없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안식일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아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알고 있습니까?



## 나이지리아에서의 재미있는 활동

나이지리아 아베오쿠타

지방부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지난 해, 아론 신권 기념 활동을 위해 함께 모였다. 모든 신권 소유자와 그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과 손님들은 게임도 하고, 쌀로 만든 나이지리아 대중 요리인 졸로프를 먹으며 저녁 식사도 즐겼다. 지도자 봉사를

상징하면서 지부 회장들이 음식을 접대했다. 식사 후,



참석자들은 각각 자신의 접시를 닦았다. 청남들에게는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기술을 실천하십시오.”라는 권고가 주어졌다.

1829년 5월 15일에 침례 요한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회복해 준 것을 기념하면서 청남들이 그 사건을

연극으로 보여 주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에 휩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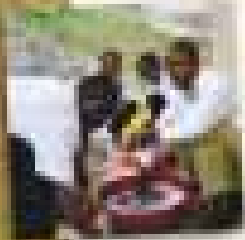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 복음과 교회가 재미있도록 하십시오.”(뉴욕 주 뉴욕 시,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전한 말씀 중에서, 2005년 6월 12일)라고 한 권고에 따라 이 나이지리아인 집사, 교사, 제사 및 장로들은 나란히 연극과 봉사를 하면서 큰 기쁨을 찾았다.

## 말 한마디

**복천년:** 천년기란 천년의 기간을 일컫는다. 교회에서 “복천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신약개조 1:10) 구주의 재림 이후에 오는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천년은 지상에 의로움과 평화가 깃드는 시기로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올바르게 될 것이다. 교회 회원들은 그 시기 동안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으로 바빠질 것이다.

천년의 기간이 끝날 즈음,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 자기 군대를 모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담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패배하여 영원히 내던져질 것이다.(교성 88:111~115 참조)



## 8월에 일어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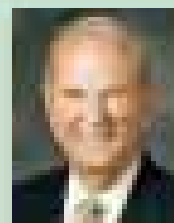
1829년 8월 25일: 마틴 해리스(오른 쪽)가 몰몬경 출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농장을 저당 잡히는 데 동의했다. 1830년에 5천 권이 출판되었다.

1953년 8월 5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스위스 성전(현재 스위스 베른 성전) 기공을 위해 첫 삽을 떴다. 그것이 유럽의 첫 번째 성전이였다.



1973년 8월 1일: 일본 나고야 선교부 및 태국 방콕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1985년 8월 2일: 교회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영어 찬송가를 출간했다. 이 찬송가는 21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안내가 필요합니다. 표준 경전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가장 훌륭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 경전의 안내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마틴 해리스의 인물화: 루이스 에이 령지; 찬송가 사진: 존 루크; 배경: 스킵트 너드슨



**주님께서는 항상 도와주십니다**

리아호나에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저를 교화시켜 줍니다. 저는 집에서 유일한 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도와 주시며,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리아호나입니다.

알리네 곤살베스 다 실바, 브라질

**계속되는 축복**

리아호나는 제 인생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리아호나의 기사들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03년 10월,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날 침례를 받은 그 특별한 축복 이후로 리아호나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제시카 리세스 신체 우르가노, 페루

**선교 사업을 하려는 소망**

저는 여덟 살 때부터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주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2005년 7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어느 선교사의 소망”을 읽고 저는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젊은이는 봉사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고,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의 좋은 소식을 세계 도처로 보내 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리아호나는 우리를 고무시켜 주며 큰 축복을 얻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줄리언스 제이 안드라다 2세, 필리핀

**충만한 기쁨**

저는 여러분 개개인, 즉 번역사들과 리아호나의 출판을 돕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선지자들과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을 손에 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침례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저활동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2004년 10월 연차 대회)을 듣고, 구주께서 제가 죄에서 구속될 수 있게 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마가 말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제 기쁨은 충만합니다.

아라셀리 아로요 로메로, 멕시코

**방향이 필요합니까?**

**리**아호나가 리하이와 그의 가족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것처럼 리아호나 잡지는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배울 때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호는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월호 리아호나 또는 구독권을 선물함으로써 새로운 회원 친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역 배부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친구들



#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 리 각자는 이 필멸의 생의 일부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신앙의 보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1844년에 교회에 들어온 웨일스인 개종자 토마스 자일즈는 생애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광부였는데 하루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다가 커다란 석탄 덩이에 머리를 맞아 길이가 23센티미터나 되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를 살펴본 의사는 그가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완쾌할 것이며 “만약 맹인이 된다면 하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일즈 형제는 정말로 살아남았지만 여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1856년에 자일즈 형제와 그의 가족은 유타 주로 이민했습니다. 조국을 떠나기 전에 웨일스 성도들은 그에게 하프를 선사했고, 그는 훌륭한 하프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오와 주 카운슬블러프스에서 그는 서부로 향하는 손수레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손수레를 끌고 카운슬블러프스에서 솔트레이크까지 갔습니다.” 평원을 횡단하는 동안 그는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무척 컸으며 크게 상심했으나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솔트레이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은 브리검 영 회장은 자일즈 형제에게 웨일스에서 그의 하프가 도착할 때까지 귀중한 하프를 빌려 주었습니다. 자일즈 형제는



파우스트 회장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신앙을 행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유타 주에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감미로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sup>1</sup>

우리는 모두 시련에 직면합니다. 교회의 초기 회원들은 자일즈 형제가 신앙을 갖고 모든 것을 포장 마차나 개척자 손수레에 실은 채 미대륙을 횡단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을 때처럼 시험 받고 다듬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가지고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험 받고 다듬어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실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에서 많은 충돌과 굴곡과 갈림길에 마주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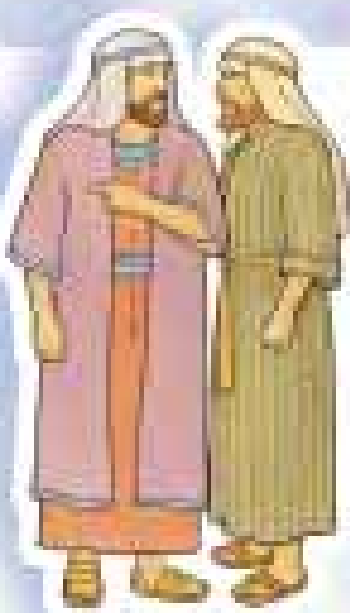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경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매우 귀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주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

200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주

1. Andrew Jenson, *Latter-day Saint Biographical Encyclopedia*, 4권 (1901~1936), 2:507~508 참조.





**활동**

1. 본 페이지의 그림을 오려 낸다.
2. 두꺼운 종이에 풀이나 테이프로 그림을 붙인다.
3. 플란넬 보드에 그림을 붙이고 싶으면 두꺼운 종이 뒷면에 플란넬 천이나 거친 천을 붙인다.
4.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용하여, 니파이, 다니엘, 젊은 용사들 및 롯의 이야기를 한다.(니파이전서 3~4장; 다니엘 6장; 앨마서 57:19~27; 롯기 1장 참조)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kr](http://www.lds.or.kr)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 경전이 길을 알려 줍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할 것을 기억하여 그로 인해 유익을 얻기  
바라며”(모사이야서 1:7)

린다 매글비, 엘리자베스 리스



우리는 순종하면 축복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경전은 힘들 때에도 계명을 지킨 사람들의 예를 보여 줍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며칠 동안 여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반으로부터 경전인 낫쇠판을 가져오도록 명했습니다. 레이맨과 레무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투덜대며 불평했습니다. 니파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니파이전서 3:7) 주님께서 니파이를 도우셨습니다. 그 일은 힘들었지만 그는 낫쇠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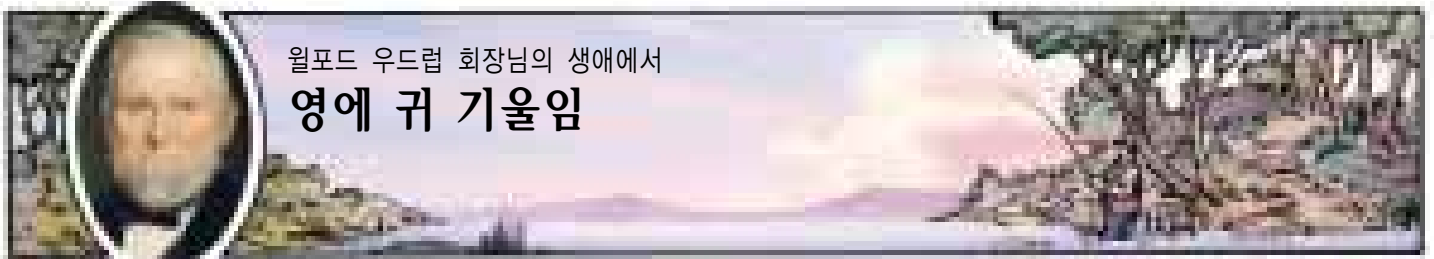
다니엘은 올바른 일을 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왕을 속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였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한 니파이와 다니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숙한 복장을 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힘이 들어도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니파이전서 19장 23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경전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라고 질문한다. 비추어 본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같은지 볼 수 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볼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비추어 봄”, 165쪽 참조) 다음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 참조 성구들을 나누어 준다; 모사이야서 2:17~18(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모사이야서 4:16(가난한 사람들을 도움); 앨마서 37:36~37(항상 기도함); 출애굽기 20:12(우리 부모님을 공경함); 모사이야서 5:5, 7(침례 성약을 맺고 지키).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행하게 한다. (1) 경전을 읽는다, (2) 복음 원리를 찾아서 자신의 말로 설명할 준비를 한다. (3) 그 메시지를 오늘날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또는 비추어 볼 수) 있는지 말한다.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경전을 자신들에게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축복 받는지 토론한다.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한다. 구수에 대해 간증한다.

2. 칠판 아래 쪽 왼편 모서리에 출발점을 두고 위쪽 오른 편 모서리에 결승점이 있는 간단한 게임판을 그린다. 마지막 네모 칸 바로 아래 물을 표시하는 선을 그린다. 오려낸 노아의 방주 그림을 위치를 표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게임의 목적은 방주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려낸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의 그림을 방주 위에 놓아 둔다. 오려낸 그림 뒷면에 숫자 1, 2, 또는 순종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의 제목을 적는다. 노아의 이야기(창세기 6~8장 참조)를 다시 들려 준다. 노아의 가족이 순종으로 인해 축복 받았음을 강조한다. 어린이들에게 차례로 동물을 한 마리씩 찾아서 갖게 한다. 뒷면에 노래가 적혀 있으면 노래를 부른 뒤, 동물을 방주 속에 넣고 방주를 세 칸 옮긴다. 만약 1번이나 2번이 선택되면, 그 어린이에게 오늘날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야기하게 한 후, 동물을 방주 위에 놓고 방주를 정해진 칸만큼 옮긴다. 방주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선지자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선지자를 따를 때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의 생애에서  
**영에 귀 기울임**

윌포드 우드럽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 번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한 번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으로 가던 중 인디애나 주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어요.  
 우리를 재워 주실 형제님 몇 분을  
 알고 있어요.



윌포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중 한 명은 마차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 안에서 잠이 든 것 같군요. 여보, 잘 자요.

잘 자요.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안 되어 윌포드는 마차를 옮기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차를 옮겨야 해요.

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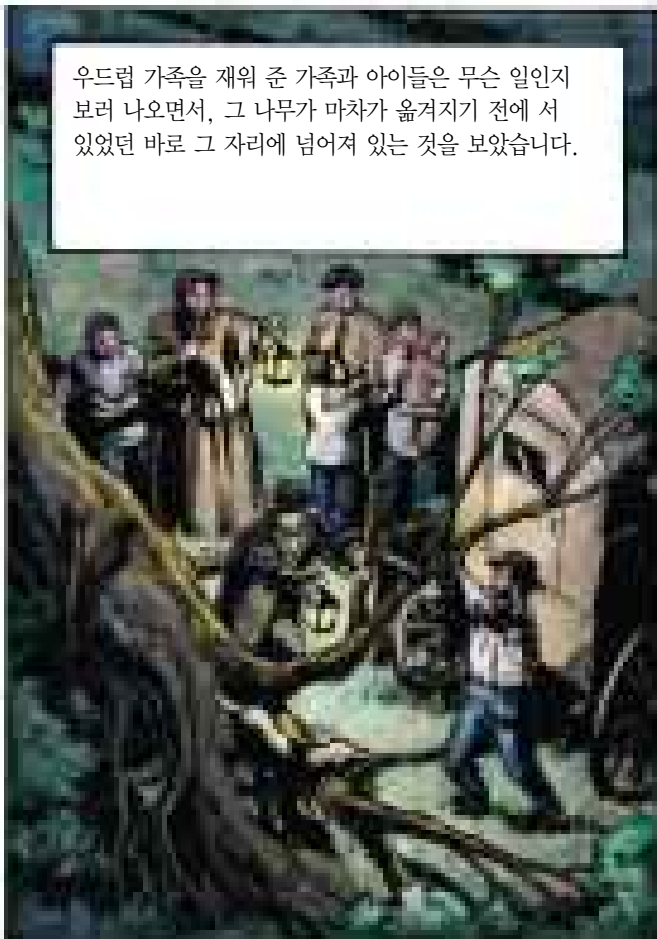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의 음성이라는 것은 알 수 있고, 그 음성이 내게 옮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윌포드는 마차를 앞 쪽으로 옮겼습니다. 약 30분 후에 갑작스러운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쳐 근처의 참나무 위를 덮쳤습니다.



우드럽 가족을 재워 준 가족과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보러 나오면서, 그 나무가 마차가 옮겨지기 전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우드럽 가족은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기뻐하며 여정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계시에 순종함으로써 아내와 자녀의 목숨은 물론이고, 내 목숨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년), 46~47쪽에서 발췌.

“내 생애에 행한 바를 기록으로 만드노라.”(니파이전서 1:1)



# 제러드의 일지

릴리아 엠 크라우치  
실화에 근거함

아론은 방과 후, 쏠살같이 앞문으로 달려 들어와 곧장 이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남동생인 제러드가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야?” 아론은 중얼거렸습니다.

“뭘 찾는데?” 제러드가 물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 그리고 아론은 옷장 안의 구석 선반 위 경전 옆에서 그가 필요로 한 바로 그 물건을 보았습니다. “여기 있다!” 아론은 소리치며 손을 뻗어 그곳에 숨겨 둔 일지를 꺼냈습니다.

아론의 머릿속은 그날 가졌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듣고 본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적고 싶었습니다. 아론은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일지의 빈 페이지를 펼쳐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러드는 형이 왜 그 공책에 적으려 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야?” 제러드가 물었습니다. 아론은 계속 일지 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느낌을 적었습니다. 제러드는 조금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공책에 뭘 적고 있어?”

아론은 적기를 멈추고 제러드를 향해 “거의 끝났어. 끝나면 말해 준다고 약속할게, 알았지?”라고 말했습니다. 제러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을성 있게 자신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조금 더 적은 후에 아론은 드디어 일지를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경전을 집어 일지와 함께 제러드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론은 물몬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책은 일지와 같은



거야. 선지자들이 적은 책이고, 그분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말해 주고 있어.”라고 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읽고 배운 이야기들, 즉 니파이에게 배를 만들라고 가르치신 주님, 성벽 위에 서서 전파하던 용감한 레이먼인 사무엘, 미대륙에 오셔서 어린이들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러드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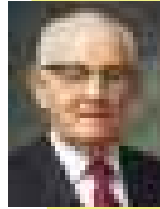
“물론과 그의 아들 모로나이는 마침내 그 백성들의 역사를

금판에 적는 것을 마쳤어. 그런 다음 모로나이는 그 판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숨겼고, 물문경은 오늘날 우리가 읽도록 남겨졌어. 언젠가 우리 가족 중 누군가도 나의 일지를 읽게 될 거야.” 라고 아론이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일지는 경전은 아니지만, 내 생애에서 일어난 모든 중요한 일들과 제러드, 너처럼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 줄 거야. 내 일지는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내 간증이 될 거야.”



제러드는 아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방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제러드는 종이 한 장과 크레용을 가지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제러드는 색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론이 호기심이 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의 다 됐어.” 제러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론이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제러드는 크레용을 내려 놓고 종이를 들어 올려 아론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제러드는 자신과 형의 그림을 그리고, 아론의 양손에는 일지와 물몬경을 그려 넣었습니다. “난 지금 내 일지를 적고 있는 거야! 여기에 시간, 날짜, 장소를 넣었어.”라고 말한 다음, 제러드는 형을 그린 만화 같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일지와 기록을 작성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또한 모든 세대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영감을 주는 근원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1895~1985), “배웠고”, 성도의 빛, 1982년 8월호, 4쪽.

사람을 넣었어”

그 순간, 제러드는 잊어버린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러드는 밝은 노란색 크레용을 가져다 종이 위쪽에 크게 웃고 있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속 느낌이야!” ●



#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이분에 대한 단서들을  
읽은 다음 밑에서 답을 찾아  
보세요.

- 1 조종사로서 세상을 두루 여행하면서, 그는 어디에 살든, 복음이 모든 문화와 종족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2 그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피난민이 된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 3 그는 11월 6일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 4 그가 여섯 살이었을 때 에비크 자매라는 분이 그의 가족을 성찬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한 자매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5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열한 번째 서열에 계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부름 받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6 그는 살아 계신 사도 중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7 그는 성신에 귀 기울이는 것을

라디오 단파 주파수에 귀 기울이는 것에 비교합니다. “우리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조절해야 하며, 너무 많은 전파 방해 때문에 신성한 주파수에 집중을 못하게 되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8 항공 학교에 다닐 때, 그는 반에서 뛰어난 학생 조종사에게 주는 사령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참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정신 체제, 즉 우리 마음과 정신에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Happy Landing”, New Era, 3월호, 1995년, 6쪽)

## 일요일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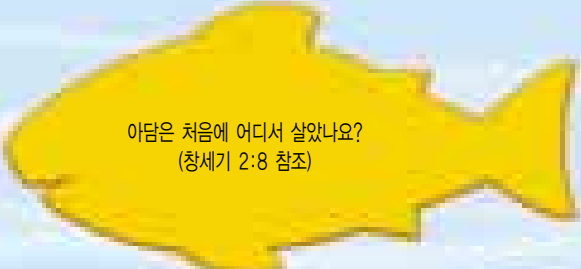
# 구약전서 내용을 낚음

**여** 러분의 일요일 상자(리아호나, 2006년 6월호, 친16쪽 참조)에 넣거나 또는 가정의 밤에서 이 게임을 하려면 풀, 가위, 자석, 클립, 1미터 길이의 줄, 그리고 일요일 상자에 넣기 알맞은 짧은 막대 하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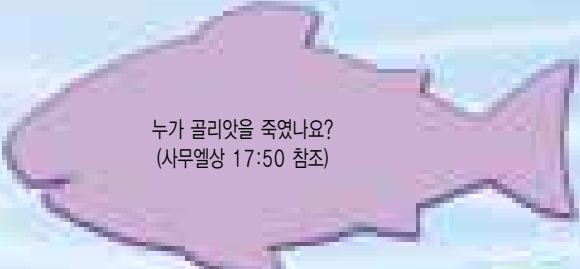
1. 낚싯대를 만들기 위해 줄 한 쪽 끝을 막대에 묶고 다른 끝을 자석에 묶는다.
2. 이 두 페이지를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여 물고기 모양을 오려 낸다. 물고기 각각의 코에 클립을 붙인다.
3. 비어 있는 일요일 상자나 다른 상자에 (연못처럼) 물고기를 뿌려 둔다. 차례로 물고기를 잡고 질문에 대답한다. 답을 못 맞추거나 틀리면 참조 성구를 보고 정확한 답을 찾아낸다.
4.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세 마리의 물고기 위에는 구약전서 질문이나 기타 복음 질문을 적을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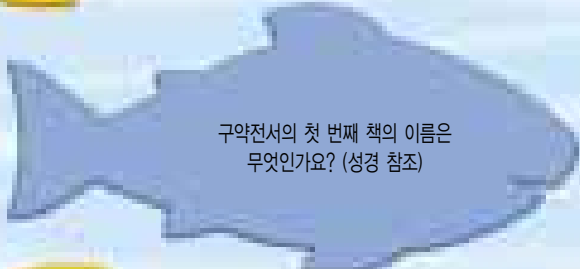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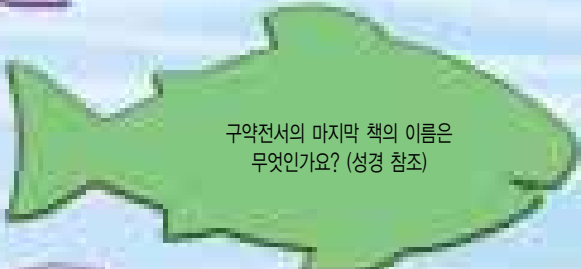
아담은 처음에 어디서 살았나요?  
(창세기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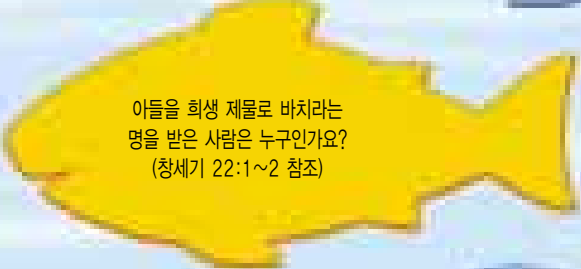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요?  
(사무엘상 17:5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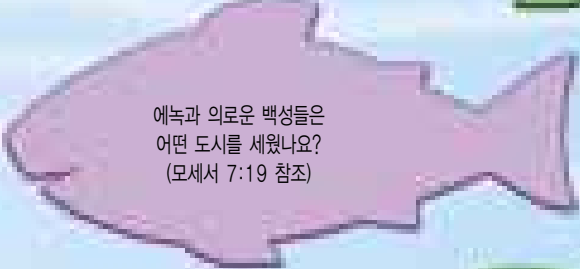
구약전서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성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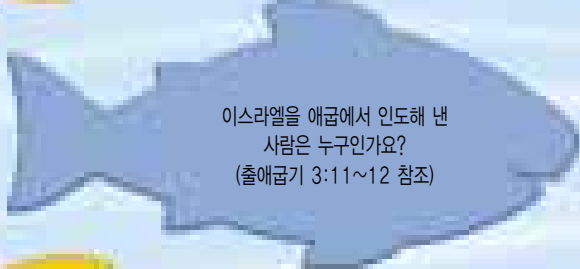
구약전서의 마지막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성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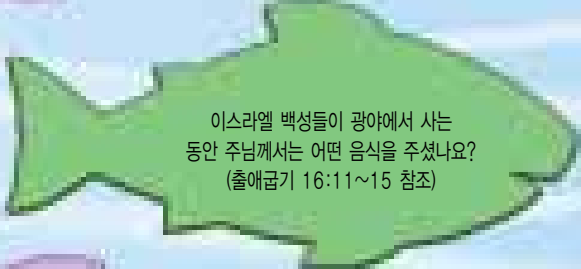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2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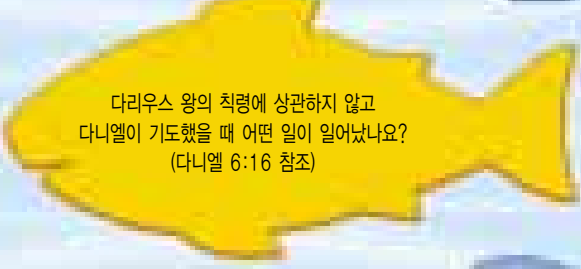
에녹과 의로운 백성들은  
어떤 도시를 세웠나요?  
(모세서 7: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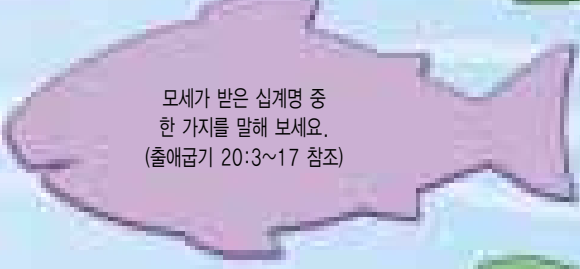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출애굽기 3:1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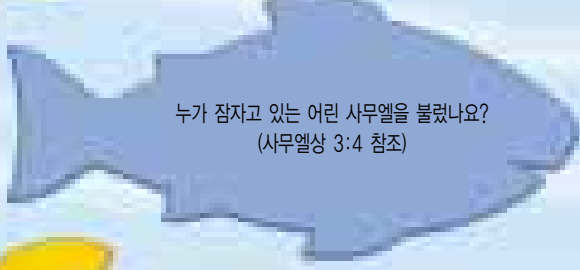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셨나요?  
(출애굽기 16:11~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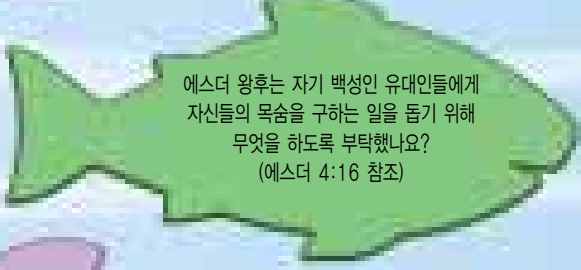
다리오스 왕의 칙령에 상관하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 6: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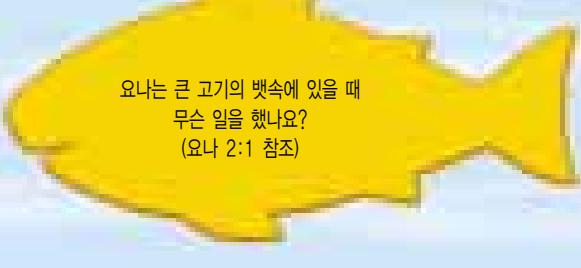
모세가 받은 십계명 중  
한 가지를 말해 보세요.  
(출애굽기 20:3~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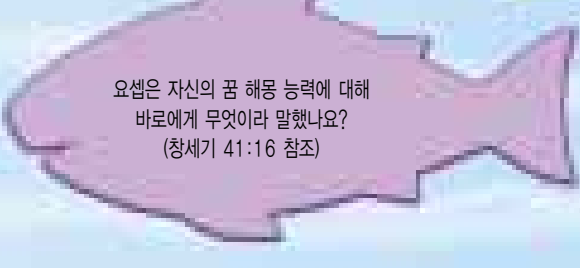
누가 잠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불렀나요?  
(사무엘상 3:4 참조)



에스더 왕후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도록 부탁했나요?  
(에스더 4:16 참조)



요나는 큰 고기의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나요?  
(요나 2:1 참조)



요셉은 자신의 꿈 해몽 능력에 대해  
바로에게 무엇이냐 말했나요?  
(창세기 41:16 참조)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복음 안에서 용감함**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만** 약 여러분이  
가라테를 정말 잘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여러분을  
놀려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 여러분의  
실력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더 이상 놀려대지 못하도록 한 수  
가르쳐 주겠습니까?

열 한살인 에두아르두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제심을 얻기  
위해 가라테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십일조를 바치고, 교회에  
참석하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제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맨 왼쪽: 에두아르두와  
마르세아가 함께 가라테  
연습을 하고 있다. 두 명  
모두 대회에서 메달을  
땀다.

## 브라질 레시페의 에두아르두, 마리아나, 마르세아 두라두

두라두는 그럴 경우 자신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이 교회 표준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를 놀려대도 그는 옳은 일을 택하여 싸움을  
거절합니다. 에두아르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 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아무도  
다치기를 바라지 않아요. 가끔은 내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일단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에두아르두는  
모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에두아르두는 욕을  
하거나 다른 나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를 놀립니다.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두아르두는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으며, 바로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에두아르두의 부모인 에두아르두 1세 형제와  
카린 자매는 에두아르두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에두아르두는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며 올바른  
일을 옹호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애는  
복음에 대해 매우 용감하며 규칙을 잘 지킵니다.”  
라고 그의 부모는 말합니다. 가라테는  
에두아르두가 자제심을 배우는 데 도움이

에두아르두의 여덟 살 된 여동생 마르세아는  
오빠를 무척 좋아합니다. 마르세아 역시 자  
제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두아르두처럼  
마르세아도 태권도를 합니다. 실제로 마르세아는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빠인 에두아르두와  
자주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는 에두아르두가  
가라테를 배울 때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두아르두, 마르세아,  
마리아나 및 부모인 카린  
자매와 에두아르두 1세  
형제





가족 중 가라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르세아, 두라두 형제, 그리고 에두아르두 뿐이다. 그러나 가족 모두 몰몬경 읽기를 좋아한다.

세 명 모두 브라질에서 시 및 지역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땀습니다. 일등상을 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들은 가라테를 무척 좋아하지만 복음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특히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두라두 형제는 몰몬경을 44번이나 읽었습니다. 에두아르두는 매일 밤 몰몬경을 읽으며, 마르세아는 처음으로 거의 다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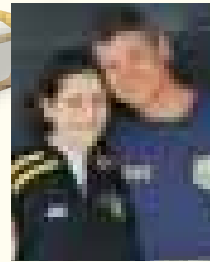
“마르세아는 오빠처럼 자제력이 있어요. 훌륭한 모범이랍니다” 라고 두라두 자매님은 말합니다. 마르세아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혼자서도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가족이 집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마르세아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두아르두는 동생이 팔기 위한 목걸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르세아는 목걸이를 하나라도 팔면 바로 십일조를 낼 돈을 떼어 놓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일은 에두아르두와 마르세아가 부모님께 배운 것입니다. 두라두 형제와 자매는 돈이 많지 않을 때에도 항상 십일조를 바쳐 왔습니다. 브라질의 많은 결혼한 부부들처럼 이 두 사람도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두라두 형제는 경찰관이자 브라질 공군 지휘관으로서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라두 자매도 경찰입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고 그들이 다시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돕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에두아르두와 마르세아에게는 10살 된 여동생 마리아나가 있으며, 마리아나에게는 자신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마리아나도 가라테를 한 번 시도해 보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나는 독서와 노래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가라테와 마찬가지로 이 일들도 잘하기 위해서는 자제심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나는 이 일들을 잘 합니다. 마리아나는 몰몬경을 자주 읽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에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나는 또한 매우 사랑스러우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나가 부르는 “우리 구주의 사랑”(“Our Savior’s Love”, Hymns, no. 113)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마리아나와 에두아르두는 둘 다 더 크면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입니다. 에두아르두는 가라테를 통해 얻은 자제심이 좀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라테 교실에 가기 위해 선교사처럼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배웠어요.”

에두아르두와 여동생들은 교회 회원으로서의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



## 2006년에 문을 열 성전들



아이다호 트윈폴스 성전이 4월에 새로이 기공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다.

**20**06년 말까지 두 개의 성전이 새로이 문을 열게 된다. 7월 29일에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이, 9월 21일에는 핀란드 헬싱키 성전이 문을 열어 운영되는 성전의 수가 124개로 늘게 된다. 또한 아이다호 트윈폴스 성전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 그리고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이 현재 개보수 중에 있다.

### 새로운 성전

천사 모로나이상이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 꼭대기에 이미 놓여져 완공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매일 신앙을 증진시키는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라고 새크라멘토 성전 프로젝트 감독자인 제이콥 쟈슨 형제는 말한다. 그에게 있어 이는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대한 증거이다.

새크라멘토 성전의 헌납은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일반 공개 이후인 9월 3일로 정해졌다. 이 성전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의 일곱 번째 성전이 된다.

새로운 핀란드 헬싱키 성전은 10월에 헌납이

예정되어 있다. “핀란드 회원들은 이 작은 나라를 위한 성전이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핀란드 교회 공보 책임자인 빌레마티 카루모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핀란드에 있는 회원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및 러시아 북서부를 포함하여 동유럽의 회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이 될 것이다. 헌납은 10월 22일에 있을 네 차례의 헌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공개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21일에 있을 문화 축전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때까지 스테이크 회장들은 핀란드에 성전을 주신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위해 모든 회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 개보수

2005년 11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은 지진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보수를 위해 문을 닫았다.

“큰 지진이 나더라도 건물은 괜찮을 겁니다.”라고 로스앤젤레스 성전 사무장인 존 디트리치 형제는 말한다. 그는 성전의 35미터 높이 탑의 대들보가 1994년 6.7도 지진으로 인해 기울어졌다고 설명한다.

한편, 타히티의 회원들 또한 태평양 제도에 있는 네 개의 성전 중 하나이며 회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파페에테 성전에서 다시 의식을 집행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성전은 개보수를 위해 2005년 8월에 문을 닫았다.

5월 1일 현재 이 두 성전의 재헌납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 기공식

이 성전들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또 하나의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되었다. 2006년 4월 15일에 칠십인 회장단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아이다호 트윈폴스 성전 기공을 위한 첫 삽을

##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지역 회장단의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으며, 이는 2006년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지역 회장단 일원들은 별도의 표기가 있지 않는 한 모두 칠십인 제일 또는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이다.

제일회장단은 또한 북미 남동 지역의 일부를 분리하여 카리브 지역을 새로이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

### 칠십인 회장단



얼 시 텅기  
1. 북미 동  
2. 북미 북동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 북미 남동



찰스 디디에이  
4. 북미 남서



멜 제이 베이트먼  
5. 유타 북  
6.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7. 유타 남



로버트 시 옥스  
8. 북미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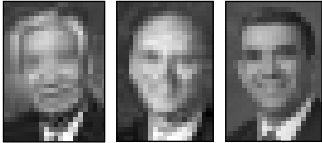


닐 앨 앤더슨  
9. 아이디호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10. 북미 북서  
11. 북미 서

### 12. 멕시코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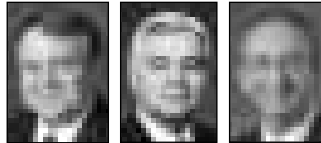


호르헤 에이  
로라스\*  
제1보좌

시 스코트  
그로우  
회장

호세 엘  
알론소\*  
제2보좌

### 16. 남미 북



벤하민 데이  
오오스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세사르 에이  
다빌라\*  
제2보좌

### 13. 멕시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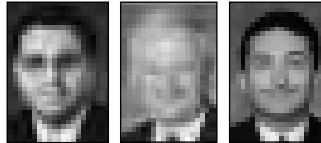


마르코 에이  
카르데나스\*  
제1보좌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회장

호세 엘  
토레스\*  
제2보좌

### 17. 남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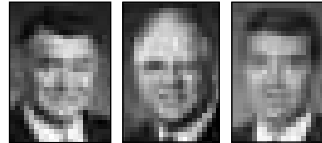


윌리 에프  
수수나가\*  
제1보좌

제임즈 엠  
던  
회장

알렉산더 에이  
누녜스\*  
제2보좌

### 20. 칠레



카를로스 에이치  
아미도  
제1보좌

칼 비  
프렛  
회장

오스카르 더블류  
자베스\*  
제2보좌

### 14. 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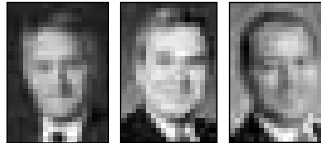


돈 알 클라크  
제1보좌

스펜서 보이 존스  
회장

호세 이 보사\*  
제2보좌

### 18. 브라질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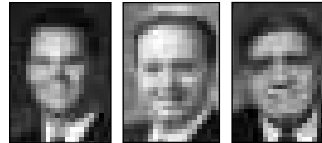


스탠리 지 엘리스  
제1보좌

윌터 에프 곤잘레스  
회장

페드로 제이 팬하\*  
제2보좌

### 21. 남미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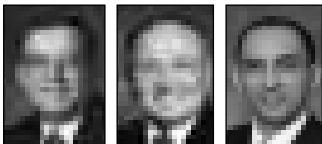


세인 엠  
보웬  
제1보좌

린 지  
로빈스  
회장

페르난도 디  
오르테가\*  
제2보좌

### 15. 카리브



다니엘 엘  
존슨  
제1보좌

클레이트 더블류  
마스크 이세  
회장

미구엘 에이  
리\*  
제2보좌

### 19. 브라질 남



올리세스  
스야레스  
제1보좌

머빈 비  
아놀드  
회장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제2보좌

### 22. 유럽 서



프란시스코 제이  
비타스  
제1보좌

케네스  
존슨  
회장


페트릭  
키어튼\*  
제2보좌

**23. 유럽 중앙**



볼프강 에이치 풀 제1보좌    브루스 시 하텐 회장    요한 에이 윈드라\* 제2보좌

**24. 유럽 동**



폴 비 파이퍼 제1보좌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회장    래리 더블류 기븐스 제2보좌

**25. 아프리카 서**



크레이그 에이 카든 제1보좌    로우얼 엠 스노우 회장    아테시나 제이 울루카니\* 제2보좌

**27. 아시아**



도널드 엘 홀스트롬 제1보좌    대릴 에이치 간 회장    디 앨런 앤더슨\* 제2보좌

**29. 필리핀**



키스 알 에드워즈 제1보좌    디 렉스 개렛 회장    마이클 제이 테\* 제2보좌

**26. 아프리카 남동**



윌리엄 더블류 린리 제1보좌    크리스토펬 글든 이세 회장    앨런 피 영\* 제2보좌

**28. 북 아시아**



고원웅 제1보좌    데이비드 에프 에먼즈 회장    카즈히코 아마시타\* 제2보좌

**30. 오스트레일리아**



존 알 김슨\* 제1보좌    폴 케이 시브로스키 회장    더크 스다이버트\* 제2보좌

**31. 뉴질랜드/태평양 제도**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제1보좌    스펜서 제이 콘디 회장    한스 티 소렌슨\* 제2보좌

뻐다. 이 성전은 작년 아이다호 주에서 건축이 시작된 두 번째 성전이다. 이 성전은 아이다호 주에서 네 번째 성전이 될

것이며, 14개 스테이크에 있는 40,000명의 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

## 신임 선교부 회장들, 임지에 배치됨

**제** 일회장단으로부터 온 임무 지명을 받아들인 108명의 신임 선교부 회장들이 2006년 7월 1일, 또는 그 즈음에 봉사를 시작했다.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이 자리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은 신임 선교부 회장과 아내들을 겸허하게 했다.

존 더글러스 워즈너트 형제에게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포르투갈레 그레 북 선교부의 회장인 그는 젊은 시절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봉사했다.

“1966년에 첫 번째 스테이크가 상파울루에 조직되었을 때 저는 이곳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교회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오늘날 브라질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26개의 선교부와 약 200개의 스테이크가 있는데, 믿기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비 이와야사 형제 또한 전통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와 그의 아내 제인 카도나가 자매는 일본계 캐나다인 3세이며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를 인도한다.

“아내와 저는 일본인들에 대해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이와야사 형제는 말했다. 그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에 나와있듯이, 그가 일본어 사용 와드의 감독 및 일본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주셨을 때처럼 그들이 이 부름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고 느낀다. 이와야사 자매 또한 일본어 사용 와드 및 스테이크에서 봉

사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일본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들 앞에 놓인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라고 이와야사 형제는 말했다.

피터 레오나드 조이스 형제는 유타 주 옥덴 선교부를 감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느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서 144개 스테이크, 그리고 약 1,500개의 와드 및 지부가 있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선교부의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전 과제를 고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아내인 쉬나 자매에게도 특별한데, 42년 전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선교사가 선교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좁은 게 아니라, 교회가 큰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선교부 및 각 선교부의 신임 회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 서울	조만구
그리스 아테네	존 갈라노스
나이지리아 라고스	채드 엘 에번즈
나이지리아 에누구	더블류 블레어 가프
나이지리아 오요	제이 웨인 브룩뱅크
나이지리아 이바단	스티븐 지 다이링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웨스트	더글러스 엠 앤드러스 이세
네브래스카 오마하	젠 니 뉴먼
노르웨이 오슬로	린 제이 폴슨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더블류 버지 윌리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브래드 알 흡스
뉴욕 뉴욕 노스	리처드 엠 설
뉴욕 뉴욕 사우스	스티븐 디 베니온

뉴욕 유타카	제이 더블류 에커슬리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리처드 더블류 토마스
독일 베를린	케이 건터 보르케르딩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마이클 에이 해리슨
러시아 모스크바 사우스	필립 엘 콜린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리카르도 브이 가야
매사추세츠 보스턴	에드워드 시 잉글랜드
메릴랜드 볼티모어	티 딘 무디
멕시코 과달라하라 사우스	로스 제이 데이빗슨
멕시코 멕시코시티 사우스	게리 비 독시
멕시코 몬테레이 웨스트	에르네스토 알 토리스
멕시코 에르모시요	오마르 빌라로보스
멕시코 쿠에르나바카	웨인 엘 가드너
멕시코 탐피코	브라이언 에이치 모스
모잠비크 마푸토	블레어 제이 팩커드
몬테나 빌링스	크레이그 지 피셔
미시시피 잭슨	파커 제이 후리먼
미크로네시아 괌	게리 엘 마샬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피델 알베르토 코엘로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알렉산더 메스트레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아브라함 이 쿠에로
벨기에 브뤼셀/네덜란드	폴 알 우드랜드
불가리아 소피아	블레어 에스 베넷
브라질 벨렘	로저 디 호건
브라질 벨로리존테 이스트	피 랜디 존슨
브라질 벨로리존테	다니엘 케이 프레이
브라질 상파울루 이스트	크레이그 더블류 윌킨스
브라질 툴리우 살바도르 사우스	더블류 제이 실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노스	존 더글러스 워즈너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사우스	렌 에스 존슨
사우스다코타 래피드시티	조셉 에스 캐넌
서인도 제도	리드 에이 로비슨
스위스 제네바	폴 티 피터슨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린 엘 서머헤이즈
스페인 마드리드	브래드 더블류 판스워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더블류 크리스토퍼 와델
스페인 빌바오	케네스 엘 두발
싱가포르	브라이언 스킵튼
아르헨티나 네우켄	칼 엘 쿡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라우 에이치 스피탈레



아이다호 포카텔로	케이 브렌트 소머스	파라과이 아순시온	매튜 지 브래들리	플로리다 탬파	클라크 에이 데이비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푸사르 피에르노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어스비	테비타 푸나키	필리핀 라오아그	마크 엘 루이스
영국 런던 사우스	제프리 시 스윈튼	페루 리마 사우스	프란시스코 더블류 피에로	필리핀 바기오	엘레아저 에스 콜라도
영국 런던	클레이튼 에프 포올거	페루 리마 센트럴	제프리 시 엘머	필리핀 바콜로드	대니 티 다퀴오아그
영국 버밍햄	리처드 더블류 모팻	페루 피우라	카를로스 에이 솔리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 윌터 개서
오클라호마 털사	켄트 엠 실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	도널드 이 퓨	호주 시드니 사우스	브렌트 더블류 맥매스터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케네스 브이 피터슨	포르투갈 리스본	크레이그 비 테리	호주 애들레이드	로버트 이 쿤 ■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세르히오 에이 고메스	포르투갈 포르투	제임스 에프 헨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웨스트	루이스 시 뱅크헤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프레드릭 에이치 애쉬비				
워싱턴 디시 사우스	비 잭슨 워섬 이세				
워싱턴 스포캔	데이비드 알 클라크				
유타 옥든	피터 엘 조이스				
유타 프로보	해롤드 시 브라운				
일리노이 시카고 노스	윌리엄 에이치 스토더드				
일본 동경 노스	앨런 에프 힐				
일본 후쿠오카	데이비드 비 이와야사				
자메이카 킹스턴	데이비드 더블류 징저리				
조지아 애틀랜타	에이치 워렌 마수섹				
중국 홍콩	리 에이치 밴 뎀				
짐바브웨 하라레	안드레 베스터				
칠레 비냐델마르	헤라르도 제이 월햄				
칠레 산티아고 이스트	소포클레스 이 모란				
칠레 콘셉시온 사우스	호르헤 에프 세발로스				
캄보디아 프놈펜	로버트 더블류 위네거				
캐나다 위니펙	저드 디 모건				
캐나다 캘거리	진 에프 프라이데이				
캐나다 헬리팩스	에스 가드너 제이콧슨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찰스 시 스토더드				
캘리포니아 샌페르난도	로버트 엘 군리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더블류 제임스 켈러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제임스 시 백				
케이프베르데 프라이아	로널드 시 톨먼				
코스타리카 산호세	루이스 리카르도 아르비수				
콜롬비아 보고타 노스	에르난도 카마르고				
콜롬비아 보고타 사우스	레네 아르투로 마르티네스				
타이완 가오슝	윌리엄 에스 추				
타이완 타이페이	노먼 에스 닐슨				
태국 방콕	칼 엘 더지				
텍사스 휴스턴 사우스	캘빈 더블류 올레드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라오스 헌납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아내인 패트리시아 자매(가운데)가 라오스 회원들을 방문하고 있다.

2006년 2월 23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북음 사업을 위해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을 헌납했다.

홀런드 장로가 라오스 국민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을 때, 지역의 후기 성도들과 인도주의 지원 선교사, 그리고 방문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정부와 지도자, 라오스 국민들과 온 땅이 평화로 축복받기를 간구했다.

홀런드 장로가 라오스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때 칠십인이자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도널드 엘 홀스

트롬 장로와 태국 방콕 선교부의 스코트 에프 헨슨 회장이 동행했다.

태국 방콕 선교부의 라오스 비엔티안 지부는 2003년 6월에 조직되었다. 지부 회장단의 캠페에 케오소우폼 지부 회장과 지부 회장단의 두 보좌는 라오스에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지도자 그룹을 대표한다.

헌납식에 참석했던 두 명의 교회 회원은 태국 방콕 선교부로 부름 받았다. 티엥사크 인타봉 장로 그리고 비엔티안 지부 회장의 딸인 라크하나 케오소우폼 자매는 라오스를 떠나 선교 사업을 하는 최

초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 헌납은 우리 나라와 이곳 교회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케오소우폼 회장은 말했다. “주님의 사도가 라오스 땅을 밟은 것이 처음입니다.”

인도주의 지원선교사인 로렌스 마틴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홀랜드 장로가 정부와 국민뿐만 아니라 밭과 곡식,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선교사인 게일 클라크

자매도 동감했다. “놀랍고 감동적이었으며, 희망과 낙관, 장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의 북동쪽과 베트남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유타 주보다 약간 넓고 약 60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내륙국으로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울창한 밀림 지역이다. 메콩강이 태국을 향한 서부 국경 지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매입된 작품들은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레베카 웨슬 와그스태프가 그린 정물 유화 한 점은 데이비스 형제가 보기에 독특하다. 작품을 품평하며 그는 “교회는 이와 같은 작품을 좀처럼 매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엠블렘[상징, 표상]이라는 제목의 이 정물화는 꽃병 한 개, 그리고 티켓 두 장과 배경에 나타나는 나무 성전의 사진과 같이 다양한 물체를 묘사하고 있다. 이 중 어떤 것도 명백히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데이비스 형제는 덧붙인다. 그러나 그는 이 그림을 좋아한다. “이 그림은 삶의 흐름을 보여 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박물관의 선임 관장이며 경연 대회 심사자인 리차드 지 오먼 형제는 선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엇이 후기 성도 미술품을 하나로 만들까요?”라고 오먼 형제는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전 과제는 미술품을 본래의 맥락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라고 작품 스타일을 작품

## LDS.org에서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국제 미술 경연 대회 수상작

**제** 7회 국제 미술 경연 대회에 출품된 다른 작품들과 함께 현재 전시되고 있는, 조각 레이스로 뜬 생명 나무에는 배후의 이야기가 있다. [www.lds.org/museum](http://www.lds.org/museum)에서 온라인 상 열리고 있는 “우리 신앙의 유산” 전시회가 그것이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 미술가에게 그 작품은 물론경의 유산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보낸 청소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신의 유산 또한 나타낸다.

81년 전에 시리아에서 태어난 멜바 힌도이안 엠라지안 자매는 14살 때 어머니에게 레이스 뜨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수공예를 배웠다. 엠라지안 자매는 현재 딸과 손녀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은 솔트레이크 시티 시내에 있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없다면, 최소한 다음 몇 개월 동안은 온라인으로 그녀의 수상 작품을 볼 수 있다.

전시회 개시에 맞추어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25명의 다른 장려상 수상자들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엠라지안 자매의 작품은 전시된 이후에 돌려보내질 예정이

다. 박물관 관장인 로버트 데이비스 형제는 기금을 통해 이러한 작품을 교회 영구 보관 미술 소장품에 추가하기 위해 15개의 매입상을 수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27일에 열린 수상식을 위해 미술가들과 방문자들이 템플스퀘어에 있는 어셈블리홀을 가득 메웠다. 도합 900개 이상의 출품작들 가운데서 전시되는 235개의 작품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지난번 경연 대회보다 거의 200개 이상의 작품이 더 출품되었으며, 대회는 매 3년마다 열린다. 출품작 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후기 성도 미술품의 창작을 장려하는 노력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경연 대회는 원래 박물관의 미술 소장품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출품작을 산출하고 있다. 수많은 작품들이 *엔사인*과 *리아호나*에 게재되어 전세계 곳곳에서 회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린이의 기도의 세부 묘사, 덴 버 작, 매입상(Purchase Award) 수상.



감람나무의 비유, 브래드 티어, 매입상.

의 고유 지역에 비추어 보는 과정에 대해 그는 말했다. 그런 다음 이차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미술가가 주제를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이다.

엠라지안 자매의 경우, “우리 신앙의 유산”이라는 주제는 그녀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잘 맞물렸다.

“할아버지는 물문경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계셨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터키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도착한 직후인 1893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분은 가족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리하이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열매가 너무 달콤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생명 나무’를 통해 가족에게 찬사를 바칩니다. 저는 이 유산을 생생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칠십인이며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집행 책임자인 말린 케이 켄슨 장로는 시상식에서 미술가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했다.

“이 경연 대회는 전세계 곳곳에 있는

미술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에 대해 경건함을 보여 드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해 줍니다.” ■



슬기로운 다섯 처녀, 루이스 파커, 매입상.

## 2006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난의 4쪽과 5쪽에 있는 “경전이 길을 보여 줍니다”를 참조한다.

1. 복음 그림 패킷 240(예수 그리스도)을 보여 준다. 엘마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모사이야서 27장 참조) 엘마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58편 42절을 외우도록 돕는다. 우리가 경전에 엘마의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어린이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엘마가 잘못 행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에스겔 33:16)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병을 보여줌으로써 회개를 설명한

다. (지역의 물 상태에 따라 물을 더 맑게 하기 위해 식초를 두 숟가락 정도 넣어야 할 수도 있다.) 이 맑은 물을 지상으로 올 때의 우리에게 비유한다. 그때 우리는 순수하며 깨끗했다. 그릇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불결해진다. (식용 색소를 넣어 변색된 물을 물병 속에 붓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엘마가 했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다. (표백제를 물병 속에 붓는다. 너무 많이 변색되지 않았을 경우 물이 다시 맑아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순수하고 깨끗해진다. 회개에 대해 간증한다. 어린이들이 회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초등학교 3 제10과를 참조한다.

2. 힐라맨의 이천 청년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표현으로 전환 준비를

한다. (엘마서 53:10~22; 56~57 참조), 10세 및 11세 소년들을 위해 경전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여 청년 용사들에 대해 말하는 대사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나는 청년 용사이며,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기로 성약했습니다.” [엘마서 53:17] “우리는 다 청년들이며, 용기에 있어 심히 용맹스럽습니다.” [엘마서 53:20] 엘마서 56:44~48; 57:19~27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대사를 작성해 나간다.

복음 그림 패킷 311(땅속에 칼을 파묻는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 또한 엘마서 23~24장 참조)의 뒷면에 있는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한다. 앞에서 준비한 대로 청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고학년 소년들이 그들의 부분을 읽게 한다. 적절한 음악, 매체, 언어, 복장 등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간단한 사례 연구를 몇 가지 준비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 165~166쪽 참조) 이것을 바구니에 넣고 여러분이 노래나 찬송가를 콧노래로 부르는 동안 흔들며 옆으로 돌린다. 임의로 음악을 멈추고 바구니를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사례 연구를 하나 꺼내서 읽게 한다. “청년 용사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했을 일을 “청년 용사” 역을 맡은 어린이들이 대답하게 한다. 모든 사례 연구들에 대해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



## 새로운 지역 회장단



고원용  
제1보좌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



카즈히코 야마시타\*  
제2보좌



**20** 06년 8월, 새로운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부름을 받았다. 새로운 지역 회장에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가, 제1보좌에 고원용 장로, 제2보좌에 카즈히코 야마시타 장로가 성임되었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는 1951년 솔트레이크시티 출생으로, 일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지난 1998년에는 일본 나고야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에번즈 장로는 그 외에도 감독과 감독단, 스테이크 청남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스테이크 회장 등으로 봉사했으며 사회적으로는 투자은행 임원과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에번즈 부부는 3남 5녀를 두었다. 에번즈 장로는 지난 2005년 4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을 받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었다.

고원용 장로는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나 1962년에 개종하였고,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과 지역 대표, 지역 관리 역

원 등으로 봉사했다. 고 장로는 한국 IBM 전무이사와 한진 정보 통신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아내 김은희 자매와 함께 1남 1녀를 두었다. 고 장로는 지난 2005년 4월,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을 받아 그 동안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었다.

카즈히코 야마시타 장로는 1953년 일본 도쿄 출생으로, 1971년에 침례를 받았다. 야마시타 장로는 그동안 감독과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등으로 봉사했고, 현재 후쿠오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야마시타 자매와의 사이에 3남 3녀를 둔 야마시타 장로는 지난 2001년 3월에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동안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던 윌리엄 위커 장로는 교회 본부로 귀환하여 신권부와 정보 통신부의 관리 책임자 보좌로 봉사하게 되었다. ■

## 가정 복음 교육

직장이며 학교 일정에 쫓겨 함께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요즘 가족들. 모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있다. 이들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신권 형제로서 해야 할 봉사의 의무를 행하며 부자 간에 의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가정 복음 교육의 현장으로 가 보자.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김영철, 김재겸 형제

“가정 복음 하러 왔어.”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수요일 저녁, 말쑥하게 넥타이를 맨 김영철, 김재겸 형제가 들어선 곳은 재검이와 또래 친구인 중환이네 집이다. 약 5년 전 아이들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친해진 어머니들을 통해 복음은 재검이네 집에서 중환이네 집으로 전해졌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두 교사가 집안에 들어서자 중환이와 동생 진주, 민아, 그리고 어머니 하순례 자매까지 안방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쑥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는 중환이의 아버지에게 김영철 형제는 함께하자는 말을 건네본다.

이날 중환이네 가정 복음 교사들이 전한 이야기는 7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제일회장단 메시지. 무심한 목소리로 경전 구절을 읽는 청남 중환이에게도, 초등회 시간에 배운 신앙개조를 외워 보이는 진주에게도, 질문에 푹푹하게 대답하는 민아에게도, 이런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하 자매에게도 이 메시지는 똑같은 느낌과 원리를 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와 함께 진지하고 조용했던 분위기가 어느덧 반전되기 시작했다. 대화의 주제가 아이들의 교회 활동이 된 것이다. 진주는 지난 한 달 동안 해 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에 김영철 형제의 사인을 받았다. 평소에는 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가정 복음 교사인 김영철 형제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진주는 8월까지 지혜의 말씀

을 공부하는 활동을 하기로 김영철 형제와 약속했다. 이번에는 토요일에 있을 청소년 활동 모임에 대해 김영철 형제가 중환이 가족에게 광고하기 시작한다. 언제 어디에서 모이며,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마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활동 모임에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이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야기하여 누구보다 어머니인 하 자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세미나리 올거제?”

메시지를 나누는 내내 조용했던 김재겸 형제. 친구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내놓은 담대한 한마디로 이날 가정 복음 교사로서 자신의 소임을 충실하게 해냈다.

이미 어둑해진 귀가 길에서 열다섯 살 가정 복음 교사 김재겸 형제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정 복음 교육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 보았다.

“이 시간이 좋아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가정 복음 교육을 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나눌지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제 생각도 물어 보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하고요.”

말수 적은 이 두 경상도 형제들은 가정 복음 교육을 의무와 희생, 헌신이 필요한 부름이 아니라 부자 간의 추억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김영철 형제는 자신의 동반자에 대한 느



낌을 이렇게 말했다.

“아론 신권 형제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에 가정 복음 교육이 완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드에서 모든 청년들을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동반자로 짝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함께 하면 좋죠. 아들이 어린아이인 것만 같았는데 이럴 때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업 가기 전에 신권 형제로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싶습니다.”

### 수원 스테이크 신동 와드 박삼곤, 박지형, 박의형, 박녹형, 박호형 형제

아버지 박삼곤, 장남 박지형, 차남 박의형, 셋째 박녹형, 넷째 박호형 형제. 박씨 집안의 이 다섯 남자들은 몇 년째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고 있다. 물론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반자 조는 아버지 박삼곤 형제와 열여덟 살인 셋째 박녹형 형제. 지난 1월에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여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장남 박지형 형제와 방학 동안 집에 와 있는 차남 박의형 형제는 고등학생 시절 박삼곤 형제와 손발을 맞추었던 동반자들이었다. 박의형 형제가 올해 스무 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동반자 자리를 셋째가 물려 받은 것이다. 일요일 저녁, 가정 복음을 마치고 돌아와 늦은 저녁을 하는 부자들에게서 함께 봉사하면서 얻었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박삼곤 형제의 첫 번째 동반자였던 박지형 형제는 아버지와의 봉사 경험이 선교 사업에서 득이 되었다고 말한다.

“선교사로서 누군가의 집에 방문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일을 2년 동안 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처음부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방문을 하면서 영을 느끼고 뿌듯해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죠. 학생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다닐 때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아버지와 개인 접견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가정 복음을 하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귀찮아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박의형 형제는 작년까지만 열성적으로 봉사한 동반자이다.

“가정 복음 교육을 하려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니까 리야호나를 읽고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증을 남한테 전한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고, 방문하면 일요일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좋아요.”

형의 뒤를 이은 박녹형 형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류이지만 나름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처음에 아버지께서 방문 가자고 하시면 귀찮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차에 타면 마음이 완화되는 게 느껴져요. 메시지 나누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 큰일 났다 싶었습

니다. 가정 복음할 때 아버지를 보면 정말 아는 게 많으신데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인 발전을 해야겠다 생각해요.”

반면, 한 번 동행해 보았다는 열네 살 박호형 형제는,

“가면 회원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좋았어요.”

라며 씨익 웃는 얼굴로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것의 장점을 말해 주었다.

그동안의 경험이 간증이 된 귀환 선교사 장남과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스무 살 둘째, 멋지게 웃으며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말하는 셋째와 형의 멋적은 웃음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넷째. 이들 형제들의 모습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신권 형제의 변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가정 복음을 하면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고향에서 더운 여름날 동반자랑 가정 복음을 했는데, 그 더운 날 여섯 가정을 방문해도 한 가정을 만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뿌듯했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박삼곤 형제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젊은 날에 경험했던 땀냄새 가득한 경험과 감동 덕분이었다. 박 형제의 네 아들들도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간증과 모범을 전해 줄 것이다.

박지형 형제는 동반자이자 아버지인 박삼곤 형제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

“직장에 다니시느라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일요일인데 여러 부름 때문에 저녁 6시 즈음이나 집에 오십니다. 그런데도 방문하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서시는 것을 보면 저한테는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 복음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



맨 앞부터 박호형, 박지형, 박삼곤, 박녹형, 박의형 형제.

# 내가 있어야 할 곳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최진화 형제

“이 가방은 저의 형님이 교회 다닐 때 들고 다니라고 제가 침례 받을 때 주신 거예요. 여기에 경전 이랑 공과책을 넣고 다니는데, 이젠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최진화 형제는 검정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아이처럼 웃는다. 2005년 12월 24일, 아들 최현우 형제와 함께 침례를 받은 최진화 형제는



자신과 가족을 변화시킨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내내 그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형제는 아내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처형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처남들이랑 처형을 만나러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서 온 가족을 집에 들여 보내 주지도 않고 악수도 못하고 … 참 이상한 교회다! 했죠.”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지라 최 형제는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데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다른 종교를 알아보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을 찾아 다녀 보고 절에도 다녀 보았다. 그런 남편을 보며 임 자매는 교회를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느꼈던 평안을 기억하며 다른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던 이 가족에게 청주에 살고 있던 임 자매의 언니, 임영준 자매의 가족이 방문하게 된다.

“처형이 집에 와 있을 때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겠다고 저더러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데려다 주는 것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근처에 있는 교회를 수소문해서 처형 식구들과 함께 갔죠. 밖에서 처형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김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편한 느낌이 다른 교회와는 참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최 형제의 집에 온 처형 가족은 한번 더 교회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이번에도 역시 기다리는 김에 한번 들어가 보자며 최 형제는 복음원리반 수업을 듣게 되었다.

“그때 복음원리반에서 ‘영원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곳이라면 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형제는 ‘잠깐 들려 본’, ‘기다리는 김에’ 들어간 교회에서 자

신이 가족을 위해 찾아왔던 것을 얻었다. 회원들도 친절했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3주 동안 계속 교회에 나오던 그는 자신의 다짐을 한순간에 번복하려 했던 적도 있었다. 좋은 곳인 줄은 알지만 집에서 세 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문이다.

“교회로 가다가 운전대를 확 돌려 집 근처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한 시간만 예배를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가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 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가족을 가르치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최 형제와 큰아들 현우가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시작했다. 2005년 겨울, 성탄절 이브에 들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통해 교회 회원이 되었고, 복음은 가족을 변화시켰다. 직장에서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신없어 하는 아빠를 아들 현우가 함께 침례를 받자고 설득했고, 임 자매는 남편을 위해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부부는 의로운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있기에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조출하게 시작한 가정의 밤은 이 가족에게 가족 인봉에 대한 꿈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 딸 이름이 이단인데, 직장 동료들이 ‘당신은 딸 이름도 이단인데 이단 교회 다닌다’고 놀려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직접 와서 한 번 들어 보라고 해요. 저도 처형 가족을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고 놀렸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지 직접 보고 이렇게 개종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이젠 일요일이 정말 기다려져요.” ■



# 알림

## 2006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WLIC)

지식 문화인의 축제라 불리는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WLIC)가 오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다. 국제 도서관 협회 연맹(IFLA, 회장 알렉스 번)이 주관하여 매년 세계 각국을 돌아가며 열리는 본 행사는 올해로 72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교회의 비영리 단체인 유타 가족 역사 위원회(GSU)는 지난 4년 동안 본 행사 가운데 가족 역사 코너를 마련하여 각국의 도서관 및 정보 관련 지식인들에게 교회 가족 역사 센터가 제작하는 계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 왔다.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조상과 가족의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회의 계보 사업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타 가족 역사 위원회의 가족 역사 코너는 코엑스 컨벤션 홀 내의 25, 26, 27번 부스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8월 21일 오후 3시~5시에는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8월 24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에는 코엑스에서 계보 사업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 새로 나온 출판물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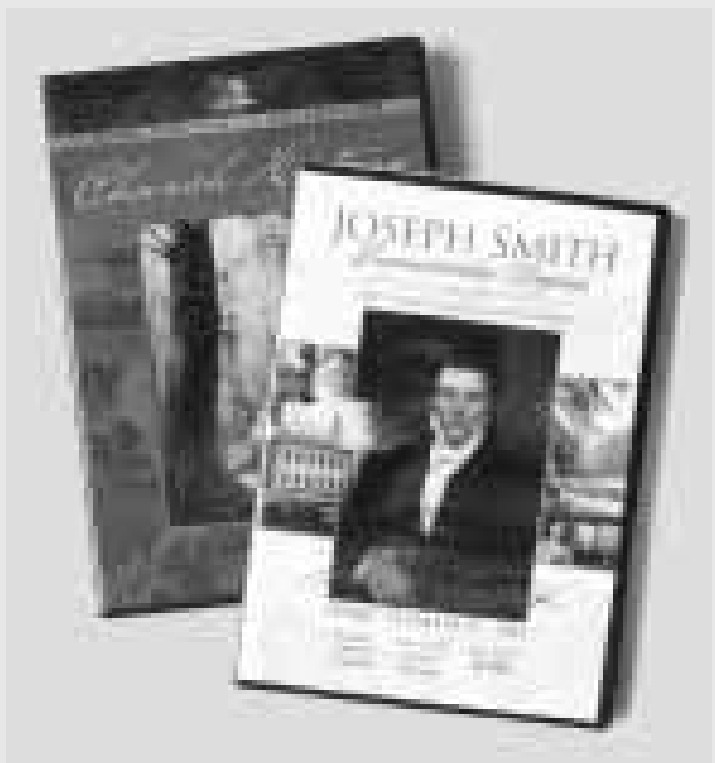
### Home and Family Collection Church History (가정 및 가족 모음집 교회 역사 - 물품 번호: 54116 000)

모두 세 장의 DVD가 들어있는 이 출판물에는 “회복”, “시온 진영” 등 스물아홉 가지 교회 역사 관련 영상물이 실려 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아 영어로 시청해야 하며, 구입을 원하는 회원들은 한국 관리 본부에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가격: 6,000원

### Joseph Smith Commemorative Program on the 2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프로그램 - 물품 번호: 01017 000)

이 DVD에는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23일에 열렸던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방송이 실려 있다. 제일회장단과 사도들의 말씀이 태버네클 합창단의 연주와 함께 실려 있으며 조셉 스미스 관련 유물과 예술 작품 사진들도 볼 수 있다. 모든 자료는 영어로 되어 있다. 가격: 4,500원

신청: 한국 관리 본부 02-2232-1441(542)



# 공보 선교사 판즈워스 부부

판즈워스 부부는 한국 최초의 공보 선교사이다. 2006년 8월에 귀환하는 이들이 말하는 한국에서의 1년 반은 어땠는지 들어 보자.

**공보 선교사로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판즈워스 장로** 저희가 선교사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보위원회와 함께 일하는데, 이 위원회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알리고 친구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사업이 한국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저희는 그 일을 돕는 선교사입니다. 리아호나를 통해서 자주 소개되는 여러 모임과 행사들을 준비하고 돕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BYU 힐 교수와 알브레크트 교수를 도와 심포지움을 마쳤으며, 이 외에도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지원, 영 엠버서더 공연팀 지원, 50주년 중에 열린 귀환 선교사 모임 지원, 가족 가치관 상 수



여, 청계천 주변 청소를 도왔던 도움의 손길 행사 및 영어 말하기 경연 대회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주요 신문사들의 문화부 기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나고 경제계, 언론계, 학계의 지도자 및 고위층 인사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부름을 수행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판즈워스 장로** 한국에 오기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공보부에서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에서도 1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공보 훈련 모임에 참석하기 했습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을 새롭게 사귄 수 있는 기회들은 저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즈워스 자매** 저희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졌던 많은 모임과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처치 뉴스에 기사를 써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언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재능이 선교 사업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판즈워스 자매** 한국의 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할

Family Values Award presented in Korea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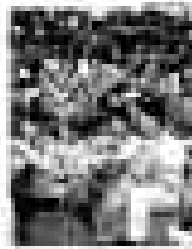


Korean commemoration



Koreans prepare

H



판즈워스 자매가 처치 뉴스에 기고하여 실린 한국 교회 관련 기사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매우 충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와 가깝게 일하셨던 고원용 장로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체구에 비해 거대한 영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판즈위스 장로** 저도 자매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도시 공보 위원회에서 봉사하시는 최석구 형제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엄청난 시간을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하면서 사귄 친구 중에 서울 디지털 대학교 조백제 총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 총장님은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거의 2년간 BYU의 방문 교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맺고 있는 훌륭한 친구 가운데 한 분이시며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추억거리와 인상 깊은 일들이 많아 한 가지만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돌아가서 제 아이들에게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서도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위해 봉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셨습니다.

####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느낀 점들은 무엇이 있나요?

**판즈위스 부부** 부부 선교사로서 봉사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

입니다. 우리는 부부로 함께 봉사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한국인 형제자매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독신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부부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희생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때때로 힘들 때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를 그리워했고, 저희도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영적이며 세상적인 축복들은 너무도 커서, 우리가 만일이 선교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고향에 머물렀더라면 그들은 많은 축복들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 축복들을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 사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좀더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또한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봉사에 희생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집에 남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축복들입니다. ■

##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 1.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다 이런 일도 겪어 봤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대, 직장, 학교 등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경험과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리아호나* 기자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 속 현장, 즉 이야기와 관련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권장합니다)  
기한: 8월 25일까지

### 2. 예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간증이나 그 마음을 담은 그림

12월에 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과 순간, 어린이의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그린 그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역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  
기한: 10월 25일까지

####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 원당 와드 헌납식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헌납식이 지난 7월 16일에 원당 와드 새 집회소에서 열렸다. 이날 원당 와드 회원들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와 한국 관리 본부 대표 최윤환 형제 등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새로운 집회소를 헌납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과 음악으로



표현했다. 고원용 장로는 헌납식에서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함께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시온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했다.(이숙희 기자)

### 지역소식

#### 광주 스테이크 첨단 지부 집회소 기공식

2006년 5월 2일 광주 스테이크 첨단 지부 집회소 기공식이 있었다. 1998년 3월 9일에 조직된 첨단 지부는 8년 동안 회원들의 신앙과 노력으로 발전해 온 결과 340여 평의 부지에 표준 건물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첨단 지부 김용진 회장은 “새로운 건물은 우리의 수고의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시작이다.”라며 그 동안 참여했던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최진 기자)



#### 바로잡습니다

지난 6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 서울 서 선교부 탐방 기사 중 서울 남 스테이크 회원 선교 사업을 다룬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신림 와드 회원들이 신회원들을 돕는 방법 중에

“매달 두 번씩 대리 침례 의식 참석”은 “모든 신회원들이 최소한 두 번 대리 침례 의식에 참여했다”로, “40여 명이던 활동 회원이 올해 4월에 8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2004년 9월에 40여 명이던 회원이 지난 해 12월에 8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로 바로잡습니다.

## 지역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대회  
지난 5월 27일과 28일에 윌리엄 더블류 워커 장로의 감리로 광주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 광주 스테이크 체육 대회  
지난 6월 6일 열린 광주 스테이크 체육 대회에서 피구와 축구, 꼭짓점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감독: 장진규(전임: 이인기)

####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감독: 라승천(전임: 이호상)